

# 中共 歷史學의 潮流(1949~1986)\*

全 海 宗

- |                       |                       |
|-----------------------|-----------------------|
| I. 緒 論                | 58~76)                |
| II. 歷史學의 草創期(1949~58) | IV. 歷史學의 再建期(1976~86) |
| III. 歷史學의 變革期와 受難期(19 | V. 結 論                |

## I. 緒 論

中共이 建國한지 이미 40年이 되어가는 동안에 中共의 歷史學이 매우 急激한 變質을 겪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 變질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外國의 學者들이 적지 않은 關心을 기울여 왔고, 學問的인 研究의 結果도 또한 상당히 많이 출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中共의 歷史學에 대하여 關心을 가져왔으나, 지금까지 中共에서 出版되는 歷史資料나 研究의 結果는 물론하고, 中共의 歷史學 一般에 관한 狀況을 안다는 것도 容易한 일이 아니었고, 또한 外國에 있어서의 中共의 歷史學에 대한 研究成果를 入手하는 것 그도 간단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직접 中共의 歷史學에 대하여 探索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中共 以前의 中國史 研究에 있어서 많은 支障을 느껴 왔었다. 學問上의 通路가 거의 閉鎖상태에 있었던 만큼 學問的인 慾求는 더욱 增大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中共의 歷史學에 대하여 研究하는데 있어서의 첫째의 問題點인 學問上의 通路는 最近에 이르러 多少는 열리기 시작하였다. 資料나 研究成果를 직접 中國으로부터 輸入할 수는 없어도 第三國을 통하여 入手할 수 있게 되었고, 共產圈의 出版物에 대한 禁制도 學術的인 것에 대하여는

\* 本 研究는 1987 年度 共產圈研究支援金을 받아 西江大 東亞研究所에서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緩和되고 있는 것은 매우 多幸한 일이다. 이 첫째의 문제가 解決되어 간다고 하여도 매우 重大한 둘째의 문제가 있다. 그것은 中國에서의 歷史研究의 成果가 量的으로 매우 尨大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中國史學會」에서 1979年 以來 해마다 發刊하는 「中國歷史學年鑑」의 1986年分에 紹介된 歷史關係(外國史除外)의 著書(資料 포함)는 500種을 넘으며, 論文은 약 5,000篇이다. 이들은 주로 1985年에 出版된 것이며, 1984年 出版物이 一部 收錄된 대신에 1985年의 出版物 중 一部는 未收錄이기 때문에 1985年의 出版分이 約 5,000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예를 들면 中共의 歷史關係의 雜誌로서 代表的인 것으로 1954년부터 刊行된 「歷史研究」는 1986年까지 (중간에 약 8年間の 空白이 있음) 180餘號를 출판하고 여기에 收錄된 論文數가 약 3,000편에 이른다. 歷史關係의 論文을 掲載한 學術雜誌의 數도 매우 많으며, 筆者가 閱覽할 기회를 가진 雜誌數도 100을 헤아리는 만큼 總數는 그 數倍가 될 것이다. 위와 같은 量的으로 尨大한 論著 가운데에 玉石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더 말할 필요가 없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歷史에 관한 出版物이 많고 또 그 入手가 쉽다 않는 점에 비추어 앞으로의 中共에 관한 歷史研究 나아가서는 中國史의 研究를 위한 入門的인 作業으로서 中共의 歷史學의 一般的 潮流에 대한 理解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本稿를 試圖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筆者는 外國에 나가는 機會마다 若干의 資料를 蒐集하였고, 한편으로 同學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서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였다.<sup>1)</sup>

그런데 中共의 歷史學의 「潮流」라는 점에서 볼 때에 40年에 未達하는 期間이지만 時期에 따라서 그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分期的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角度에서 中共 自體에 있어서의 研究成果를 볼 때에, 그들 研究에는 個別的인 分野 또는 問題에 대한 時間

1) 특히 하와이大學의 崔永浩教授는 本稿에 관련된 歐美의 資料를 入手 送付하여 주셨고, 서울대의 李成珪 教授는 「歷史研究」의 初期의 論文을 複寫하여 주었고, 또 臺灣의 政治大 國際關係研究中心의 大陸資料를 利用할 수 있는데 대하여 감사를 표시한다.

的 推移를 알 수 있는 研究는 있으나, 綜合的으로 中共의 歷史研究의 推移를 理解할 수 있는 研究는 거의 없었다. 中共의 歷史學에 대한 綜合的인 考察은 오히려 中共 外의 學者들에 의하여 試圖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例를 들면 일찌기 1961年에 中共史學에 關한 論文<sup>2)</sup>으로서 學界의 定評을 받은 바 있는 美國 미취간大學의 Albert Feuerwerker 教授는 中共史學에 關한 17편의 論文을 編刊하기도 하였다.<sup>3)</sup> 다만 이 책에 收錄된 論文도 大部分 個別的인 問題에 대한 考察인데 部分的으로 綜合的인 言及이 보인다. 現在 香港 中文大學의 教授인 遼耀東氏는 1960年代로 부터 中共의 歷史學에 關한 研究를 계속하여 2卷의 著述을 내놓았다.<sup>4)</sup> 遼教授의 著述은 中共의 史學을 매우 包括的으로 敘述하고 있다.

中共 歷史學에 대한 分期는 文化大革命의 初期에 臺灣 文化大學의 宋晞 教授가 「中共의 史學研究」라는 論文에서<sup>5)</sup> 安撫期(1949~1955), 「反右派鬭爭」에서 「史學革命」까지 (1956~1960), 「大躍退」에서 「文化大革命」까지 (1960~1967)로 3分하여 一旦 큰 흐름을 問題視한 것은 首肯이 가기도 하나 具體的인 分期에 있어서는 贊同하기 어렵다. 近來에 中共의 元老 史學者의 한사람인 白壽彝는 「六十年來 中國史學的 發展」<sup>6)</sup>이라는 小論에서 4分期(1949~56, 56~65, 66~76, 76~81)하고, 紙面으로 2페이지 정도로 4期の 經過와 特徵을 간략하게 說明하고 있으나, 各期の 標題는 없다. 1, 3, 4

2) "China's History in Marxian Dress",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66, No. 2, 1961. 著者는 당시 이 論文의 別刷를 筆者에게 보내와서 大學의 講讀教材로 쓴 일이 있다.

3) A. Feuerwerker, ed., *History in Communist China*(Cambridge, 1968).

4) 「中共史學的發展與演變」(臺北, 1977); 「史學危機的呼聲」(臺北, 1987).

5) 「華岡學報」第4期(1967)所收. 高柄翊教授는 「中共의 歷史學」, 中央日報 東西問題研究所刊「研究論叢 2, 中共體制」(1974)所收에서 이와 비슷한 分期를 想定하고 있으며, 中共成立 以前의 唯物史觀의 脈絡에 留意한 것이 特色이다.

6) 「歷史教育和史學遺產」(河南人民出版社, 1983)所收(「史學月刊」1982. 第1期 原載). 이 論文은 中國共產黨成立의 六十周年을 紀念하여 「回顧與前瞻」이라는 題目으로 「中國史研究」(81年 2期)에 발표한 글을 補充한 것인데, 이 原論文에는 分期에 關한 言及이 없다.

期の分期는 筆者의 見解와 같으나, 2期에 관하여는 다르다. 1, 3, 4期는 政治的 事件과의 관련에서 分期하면서 2期는 歷史의 材料調査·編纂事業을 內容으로 하고, 分期의 始初를 1956年으로 定하면서 內容說明은 1958年 이후의 편찬사업과, 1961年의 文科教材會議를 舉論하고 있다.

中共의 歷史學은 政治와 密着되어 있기 때문에 歷史學의 分期도 政治의 그것을 第1次的으로 考慮하여 設定하는 것이 妥當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政治上으로 「社會主義改造의 基本完成」(1949. 10~56. 12), 「社會主義全面建設의 開始」(1957. 1~66. 5), 「文化大革命」(1966. 5~76. 10), 「社會主義建設의 新時期」(1976. 10~84. 12)<sup>7)</sup>라고 하는 分期를 參考하여 歷史學의 分期도 거의 이와 같은 時期로 區分하되 分期의 標題는 歷史學 中心으로 設定되어야 할 것은 물론이다. 다만 第2期の 시작은 「史學革命」의 開始에 있으므로 1958年으로 定하되, 史學革命의 氣運은 이미 시작된 것이므로 그 以前으로 遡及할 수도 있을 것이다. 中共 歷史學의 分期는 위와 같이 設定하되 本稿의 敘述에 있어서는 第3期 文化大革命期의 問題를 簡略게 다루는 까닭으로 章別을 따로 하지 않고 第2期和 같이 한 章으로 뒤 分離하여 敘述하려고 한다.

中共 歷史學의 問題는 매우 廣汎한 문제이나, 本稿는 그 主된 潮流를 考察하는데 重點을 두려고 하며, 따라서 中共 以前의 歷史學과의 관련에 대하여는 不得已한 경우를 除하고는 言及하지 않겠다. 또 唯物史觀에 관련된 問題와 論議에 대하여 그 要點을 提示하여 時代의 특징을 理解하는데 그치려고 한다. 그리고 筆者가 이 問題에 대하여 가진 關心의 期間과 能力의 制限 때문에, 주로 一般의이라고 생각되는 資料에만 依據한 까닭으로 때로 間接的 引用이 不可避하며, 특히 大陸出版의 日刊紙 등은 利用할 수 없었던 까닭으로 이들에 대한 引用은 주로 前舉한 邊耀東·宋晞 教授 등의 著作에 根據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

7) 吉林省 中央黨史學會編(鄭德榮 등 主編) 「新中國紀事 1949~1984」(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86. 2月; p. 873)에 의거함. 後述 특히 4章 2節 本文 참조.

## II. 歷史學의 草創期(1949~58)

中共政權의 成立이 中國의 歷史學에 一大轉機를 가져왔으며 唯物史觀이 歷史研究의 뚜렷한 바탕이 되었다는 事實은 論議의 여지가 없다. 中國의 史學者들 中에는 中共의 成立 以前 부터 唯物史觀의 立場에서 歷史研究를 推進하여 온 學者들이 있었으나 그 時期에 唯物史觀이 研究의 主流가 될 수는 없었다.

本章에서는 中共에서 唯物史觀이 土着되는 過程과, 唯物史觀의 立場에서 볼 때에 中國歷史上 重要하다고 設定되었던 다섯가지 문제, 즉 「五朵紅花」(다섯 송이의 붉은 꽃)의 문제, 그리고 이 時期의 研究機構와 編纂事業의 成果 등에 관하여 살펴 보려고 한다.

### 1. 唯物史觀 土着化의 初期

1949年 10月 1日 中共政權의 成立을 公布한 8日 후인 10月 9日에 열린 中國人民政治協商會議의 第1次 全國委員會의 會議에서 마르크스主義史家 郭沫若(1892~1978)이 同委員會의 副主席 5名 中의 한사람으로 當選(主席은 毛澤東, 副主席의 第1席은 周恩來)<sup>8)</sup>되었다는 사실은 두가지 점에서 意義가 깊은 것이다. 하나는 中共에 있어서의 唯物史觀의 位置며, 또 하나는 中共 史學界에 있어서의 郭의 公的·私的 活動의 比重이다. 이러한 環境 속에서 많은 史學者들이 講演·討論·日刊紙를 통하여 唯物史觀을 고취하였다. 郭 보다 數年 後輩인 元老 唯物史觀 史家인 翦伯贊(1898~1969)이 1950年에 「中國歷史를 어떻게 研究할 것인가」라는 題目으로 행한 講演에서 “歷史發展의 法則을 現實의 歷史에 再投入하여 無產階級 革命鬭爭의 指導原則으로 삼는다”(把歷史發展的規律 再投入現實的歷史 作

8) 註 7)의 「新中國紀事」, p. 7.

9) 「怎樣研究中國歷史」, 新建設 第3卷 第2期(1950年 11月). 이 글은 그의 「歷史問題論叢」(北京, 1956)에 收錄.

爲無產階級革命鬭爭的指導原則)<sup>9)</sup>고 말한 것은 비록 一部 人士들의 反論도 있었으나, 歷史의 法則性을 理解하고 그 法則性을 現實의 歷史에 適用하며 이를 革命鬭爭의 指導原理로 삼는다는 점에서 中共의 歷史研究의 方向을 端的으로 表現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唯物史觀은 史學者들에게만 要求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앞의 藹의 文章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歷史發展의 法則性의 理解는 革命鬭爭의 指導原則의 根本이 되는 까닭으로 史學을 專攻하는 學生은 물론하고 一般 學生들의 敎科課程에는 「마르크스·레닌主義 基礎」·「新民主主義論」·「歷史唯物主義」가 必修로 規定되었다.<sup>10)</sup> 매우 당연한 일이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中共의 指導理念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이 結付된 것이고, 歷史學의 側面에서 말하면 中國史에 관한 毛澤東의 一言一句는 歷史敎學의 金科玉條가 되는 것이다.

당시 史學者들의 歷史에 관한 所論은 「新史學通訊」·「歷史敎學」·「文史哲」·光明日報의 「史學」雙周刊, 進步日報의 「史學」周刊 등과 日刊紙一般雜誌 등에 揭載되었으며, 本格的인 歷史關係의 綜合誌가 刊行되게 된 것은 中共의 建國 4年餘를 지나서 「歷史研究」의 創刊이었다. 「歷史研究」가 創刊되기 전에 史學者들은 組織的으로 歷史研究와 歷史敎學을 推進하려는 活動을 계속하였다. 郭沫若을 中心으로 일찍 北京에서 成立된 「中國新史學會」는 1951年 7月에 「中國史學會」로 再出發하였는데, 이 때에 郭은 「中國歷史上的新紀元」이라는 題目으로 歷史研究의 方法·作風·目的과 對象에 관한 6項의 새로운 方案을 提示하며 唯物史觀을 強調하였다.<sup>11)</sup> 史學會 內에 組를 두어 6項의 課題를 推進하고, 天津·南京·上海·西安·

10) 劉大年 「中國歷史科學現況」, 光明日報(1953. 7. 22). 方回 「解放四年來 新中國的 歷史科學發展概況」, 光明日報 「史學」雙周刊 14號(1953. 10. 3)

11) 進步日報 史學周刊 38期(1951. 9. 29) 그 6個項은, 1. 唯心史規에서 唯物史規으로 2. 個人的 研究에서 共同研究로 3. 純粹한 學術研究에서 「人民에게 服務하기 위한」 研究로 4. 古代보다 近代 重視 5. 大民族主義에서 少數民族 中心으로 6. 歐美中心에서 아시아中心의 歷史로 라고 하는 轉換을 강조하는 內容이다.

開封 등에 分會를 두었다.

郭沫若을 中心으로 「歷史研究」의 刊行을 위한 18名의 編輯委員會가 構成되었는데 그들은 다 中共黨員이며, 그 名單은 다음과 같다.

1. 從來로 일반 史學者로서 名聲이 있던 人物: 陳寅恪·陳垣·向達·白壽彝·湯用彤·季羨林·夏鼐
2. 非共產化地域出身과 마르크스主義者 또는 進步의 史學者: 郭沫若·翦伯贊·胡繩·侯外廬·杜國庠·呂振羽·嵇文甫·吳晗
3. 延安에서 온 史學者: 范文瀾·劉大年·尹達

이 編輯委員會의 편집 責任者는 尹達, 부책임자는 劉大年으로 尹達은 郭의 著書 「中國古代社會研究」를 갖고 延安에 왔던 사람이고, 劉大年是 延安에서 范文瀾의 그림자 같은 사람이었으니 이 편집위원회 的 實務도 延安 출신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郭은 이 위원회의 委員長이었다.

「歷史研究」 편집위원회와 中國科學院(후에 中國科學院—自然科學 關係에 대하여 言及할 필요 一과 中國社會學院으로 分離) 歷史研究所와의 關係에 1954年 3月에 郭沫若이 基本任務에 報告<sup>12)</sup>에서 水平的 研究活動을 展開하고……目前에 存在하는 歷史의 理論과 實際의 學術論爭의 問題를 解決」하는 것을 任務로 삼는 中共의 最高學術機關이다. 이 해에 그 機構의 一部를 改編하여 歷史研究所 第1所(中國上古史, 所長 郭沫若) 第2所(中古史, 所長 陳垣), 第3所(近代史, 所長 范文瀾)를 두었는데, 「歷史研究」의 편집 事務室을 第3所 內에 두고 있다. 그러나 「歷史研究」의 편집위원의 一部는 科學院의 歷史研究所와 直接 關係가 없는 사람 들이다. 그리하여 「歷史研究」는 비록 實質上으로는 歷史研究所의 機關紙나 다른 없으나, 形式上으로는 分離되어 있다. 1979年에 創刊된 「中國史研究」(季刊)와 「中國史研究動態」(月刊)는 그 研究所의 出版物이다.<sup>13)</sup>

12) 「關於中國科學院基本情況和今後工作任務的報告」, 光明日報(1954. 3. 26).

13) 中國歷史學年鑑(1979), p. 355.

范文欄(1893~1969)<sup>14)</sup>이 所長인 同研究所 第3所와의 관계에 대하여言及하였다. 范은 1940年 1월에 延安에 이르러 마르크스·레닌學院 歷史研究室 主任으로 있으면서 「中國通史簡編」을 著述하고, 中共의 中央研究院 副院長으로 있다가, 1946년에 延長을 떠나서 北方大學의 總長으로 歷史研究室의 主任을 겸하고 있었다. 후에 北方大學이 華北聯合大學과 合併하여 華北大學이 되었는데, 范은 그 副總長兼 歷史研究室 主任으로 있다가 1950年 5月 華北大學의 歷史研究室이 中國科學院의 中國近代史研究所가 되고 다시 앞에서 말한 改編으로 第3所의 所長이 된 것이다.<sup>15)</sup> 范과 劉大年·尹達이 다 延安出身이다.

앞에서 中國科學院의 歷史研究所와 「歷史研究」에 관하여 비교적 詳細히 敘述한 까닭은 이들이 中共의 歷史學의 理論과 研究의 中樞의 機關이고 그 發表誌이기 때문이며, 現在에 있어서도 그렇다.

## 2. 「五朵紅花」와 反右派鬭爭

五朵紅花라는 말이 언제 쓰이기 시작하였는가에 대하여는 斷言하기 어려우나 向達이 쓰기 시작한 것이라고 믿어진다. 向은 본래 마르크스主義 史家는 아니었으나, 中共의 成立 후에는 北京大 歷史科 教授 겸 歷史研究所 第2所의 副所長으로 있었으며 또 「歷史研究」의 初期의 編輯委員의 한 사람이기는 하나 일찍부터 中共의 歷史學의 傾向에 대하여 不滿을 表示하고 있었는데(後述), 1957年의 整風運動 중에<sup>16)</sup> 同年 9月 30日의 北京大 全體教師大會에서 翦伯贊이 向達을 批判하여, 向은 中共의 歷史研究가 五朵紅花에만 集中하고 있다고 指摘한 것은 向이 思想改造에 抗拒하는 것이

14) 中國人の 生卒年 특히 生年은 典據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매우 많다. 本稿에서는 「中國歷史學年鑑」(已故史學家紹介)를 따르고, 때로 Columbia Univ. Press 版 *Biographical Dictionary* (1967)와 臺灣國立政治大學 國際關係研究中心 印行的 「共共人名錄」(1983 重修)를 利用하였다.

15) 같은 책 pp. 319~323의 范의 經歷 참조.

16) 中共國務院이 整風運動과 反資產階級右派鬭爭을 決定한 것은 1957.7.26 일의 일이다. 「韓中國紀事」p. 216.

라고 말하였다.<sup>17)</sup>

五朵紅花란 마르크스主義에 바탕을 두고 中國史上의 다섯가지 問題를 解決하는데 꽃을 피운다는 뜻으로 그 五朵는 中國 歷史分期問題·封建土地所有制形式문제·漢民族形成문제·資本主義萌芽문제·農民戰爭문제의 다섯 가지다.<sup>18)</sup> 歷史의 分期문제에는 古代史를 포함한다. 이들 다섯 문제가 中共史學界에서 많이 다루어졌다는 점에 대하여는 異論의 여지가 거의 없다. 1954年 2月刊의 「歷史研究」의 創刊號에는 胡繩(1908生)의 近代史分期에 관한 논문 侯外廬(1906生)의 封建社會土地所有에 관한 글, 范文欄의 漢民族形成에 관한 論文이 실렸다. 「歷史研究」의 1957年末까지의 合 24期の 論文 中에, 古代史分期에 관한 論文이 28篇, 近代史分期이 5篇, 封建土地所有形式에 관한 것 2篇, 漢民族形成이 6篇, 資本主義萌芽가 5篇이나 되니, 五朵紅花의 문제단으로 每期 2篇 정도의 論文이 실렸다. 물론 이들 논문은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應用하여, 中國의 歷史資料를 그 歷史解釋에 結付시킨 것이다. 다만 이 時期의 「歷史研究」에는 農民戰爭에 관한 論文이 보이지 않으나, 毛澤東이 農民戰爭을 「歷史發展의 動力」<sup>19)</sup>으로 認定한 까닭으로 이 時期에도 農民起義에 관한 資料는 無數히 出版되었다(後述 참조).

五朵紅花가 中共의 歷史學의 重要한 問題라는 事實은 「歷史研究」編輯

17) 藕, 「向達은 黨의 歷史科學의 領導에 대하여 어떻게 反對하고 있는 것인가(向達은 怎樣反對黨對歷史科學的領導的), 光明日報 「史學」 119號(1957. 10. 24). 이 日字는 宋晞 論文에 의거한 것인데(p. 218 註 26), Feuerwerker 論文(p. 343)에는 1957. 10. 4日이라고 하여 差異가 있으나 商考할 수가 없다. 下註를 참조.

18) 遼 「史學危機的呼聲」 p. 101에 의함. 同書 p. 96에서는 「中國歷史分期(上古和近代)」라고 하여 分期문제에 古代와 近代가 포함된다고 註記한 것은 妥當하다고 믿어진다. 宋晞 「中共의 研史研究」(p. 199)에서는 資本主義萌芽문제를 除外하고, 古代史分期과 近代史分期로 兩分하고 있으나 「萌芽문제」와 「近代史分期」를 混同한 까닭이 아닌가 한다. 그리고 Feuerwerker는 그의 論文 p. 343 (*American Historical Review*, Vol. 66, No. 2)에서는 五朵의 해석이 遼과 같으나, p. 324에서는 달리 보고 있다.

19) 毛澤東選集 「中國革命和中國共產黨」 p. 588.

部가 1983 年에 出刊한 「建國以來史學理論問題討論學要」에서 다른 問題가 어떤 것인가 하는 점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다. 즉 本書에서 다른 12 題의 문제 중에서 8 題가 五朶에 관한 것이다. 歷史의 分期문제는 다시 細分되어 亞細亞의 生産樣式, 奴隸社會와 封建社會의 分期, 封建制 內部的 分期 그리고 封建社會 長期延續(이른바 沈滯性)의 4 題로 나누어 다루었고, 五朶의 다른 넷은 자기 1 題로 다루고 있다. 12 題 중에서 남은 4 題는 古代의 周邊民族과의 關係, 民族英雄의 문제, 歷史人物의 評價에 관한 문제, 그리고 歷史發展의 動力에 관한 것이다. 이 새로운 4 題는 初期에는 部分的으로 提起된 문제도 있으나 중요한 關心의 對象이 되지는 못하였던 것 들이다.

다음에 이 時期의 五朶紅花에 관한 研究의 成果의 輪廓을 극히 簡略하게 살펴보고 한다. 첫째로 歷史의 分期문제인데 이 문제는 다시 細分된다. 그 하나는 아시아의 生産樣式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한 研究는 문제의 성격상 큰 成果를 期待할 수는 없는 것이며, 대체로 呂振羽(1900 生)가 「中國社會史綱」(1946)에서 提示한 見解 즉 아시아의 生産樣式의 段階는 奴隸社會의 하나의 變形이라고 보는 立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分期문제 중에서 奴隸制社會와 封建制社會의 分期에 대하여는 中共의 巨物級 史學者들이 對立된 見解를 提示하였다. 郭沫若은 일찌기 「中國古代社會研究」(上海, 1930)에서 商代를 原始共同體의 母系社會, 西周를 奴隸制, 東周를 初期 封建制社會라고 規定하였으나, 후에 「十批判書」(重慶, 1945)에서 이를 修正하여 原始共同體는 商代 以前, 奴隸制는 商에서 周를 거쳐 秦漢의 初期까지 存續하였다고 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또 그의 見解를 若干 修正하기에 이르렀다. 范文瀾은 西周를 封建制社會라고 보고 있어서<sup>20)</sup> 郭과 比定하는 時期는 다르나, 兩者의 封建制社會에 대한 論據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西周的 政治의 封建」과는 無關하며 大土地所有者가 農奴의 勞動力을 採取하는 農業形態를 根據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共

20) 「中國通史簡編」(1940, 1948 年에 改正版)

通된다. 그들의 異見은 어떤 解決點을 找지 못하고 있다.

近代史의 分期에 관하여 胡繩이 「歷史研究」의 創刊號에서 1840年 부터 1919年까지를 7期로 分期하고 있는데<sup>21)</sup> 대하여 같은 時期를 孫守任은 4期로, 그리고 金沖及은 5期로 區分하고 있으며<sup>22)</sup> 그 區分의 論據가 充分한 說得力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한가지 共通點을 든다면, 毛澤東이 提示한 一般論的인 見解, 例를 들면 階級鬭爭·矛盾論 또는 帝國主義侵略 등 어떤 見解에 追從하는가 하는데 따라서 可變性이 나타나는 것이다. 封建土地所有制形式에 관하여는 李挺의 「論我國的封建土地國有制」(「歷史研究」1956, 8期) 등 論文이 發表되었는데 이 문제에 관한 詳論은 省略하겠다.

漢民族形成에 관한 문제는 蘇聯의 史學者 G.V. Efimov가 1953年 10月에 스탈린의 「民族」의 네가지 特性 즉 言語·領域·經濟生活·心理의 共通的 基盤이라는 理論을 中國社會에 適用하여 漢民族의 形成은 19世紀와 20世紀에 걸쳐서 이루어졌다는 見解를 提示한데<sup>23)</sup> 대하여, 范文欄은 마찬가지로 스탈린의 理論을 비롯하여 마르크스·레닌 主義 創始者들의 見解를 援用하면서 漢民族의 形成을 秦·漢期라고 論하고 있다.<sup>24)</sup> 그 후 많은 史學者들의 討論과 論文發表가 계속하였으며 范의 見解에 대하여 一部 反論도 있었으나 대체로 그에 贊同하였다.

資本主義 萌芽에 관한 문제는 많은 史學者들의 關心의 對象으로 論議도 많았으나 解決을 보지 못한 問題로서 中共의 큰 論爭 중의 하나다. 이 問題는 毛澤東에 의하여 提起되어 中共 成立 후에 그의 「中國革命과 中國共產黨」(毛澤東選集 pp. 584~617) 속에서 中國의 封建社會가 그 商品經濟를 발전시켜 오는 과정에서 內在的으로 資本主義 萌芽를 胚胎하고 있었다고

21) 前舉한 「中國近代歷史의 分期問題」(「歷史研究」1954, 1期)

22) 각기 「歷史研究」1954年 6期, 55年 2期 所收의 論文參照.

23) Feuerwerker의 前揭論文 pp. 330~331에 의함. Efimov의 論文은 소련의 Voprosy istorii (歷史問題, 1953년 10號) pp. 65~78에 실려 있다.

24) 「試論中國自秦漢時成爲統一國家的原因」(歷史研究, 1954年 3期). 1955년에 出版된 그의 「中國通史簡編」增修版「緒言」7節 참조.

하는 基本見解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侯外廬는 毛의 基本見解를 바탕으로 明末 清初에 資本主義 萌芽의 始初를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sup>25)</sup> 그는 王夫之나 顏元의 思想이 「中國封建社會의 解體過程과 資本主義萌芽段階의 先進階級の 要求를 反映」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尙鉞은 한 걸음 더 올라가 明代에 이미 萌芽의 要素가 있었다고 論하였다. <sup>26)</sup> 그리고 이어서 文人들은 小說 「紅樓夢」의 社會的 背景을 分析하여 이 책은 封建體制에 대한 批判書라고 評價하는 등 侯나 尙의 見解가 한때 支配的이었다.

그러나 明末로부터의 小規模의 工場手工業의 發展이 斷絶없이 發展하였는가, 發展하였다면 全國的으로 擴大되어 資本主義의 生産을 이루고 西歐에 있어서와 같이 產業革命을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가 나타나며, 더욱이나 中國社會의 內在的 발전의 強調은 外勢의 侵略 즉 滿洲族의 侵入과 특히 西歐列強의 帝國主義 進出에 대한 說明을 어떻게 可能케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서 難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즉 中國史를 世界史의 發展段階에 一致시키려고 하는 努力과 過去의 歷史의 美化, 그리고 帝國主義 侵略에 대한 批判이라는 政治的 要求와의 사이에서 資本主義 萌芽문제는 滿足할 수 있는 結論을 발견할 수가 없었다.

農民戰爭에 대하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毛澤東이 中國歷史 發展의 動力이라고 規定한 까닭으로 이 時期에 이에 관한 많은 資料가 整理 出版되었는데, 다음 時期의 歷史研究에 있어서의 王朝 體系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論爭이 展開되는 까닭으로 다음에 言及하려고 한다.

이들 五朵紅花의 문제는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適用하여 中國史를 解釋하려고 한다는 것은 累次 言及하였는데, 이 點에 대하여 遼耀東 教授는 매우 分析的인 考察을 하고 있다. <sup>27)</sup> 그는 1954年에서 1961년까지

25) 「中國早期啓蒙思想史」(中國思想通史, 第5卷, 1956刊, 이 책의 原稿는 9月刊行 10年 전부터 널리 읽혀지고 있었다고 한다) 第1章 第3節(pp. 26~36).

26) 尙鉞 撰 「中國歷史綱要」(北京, 1954).

27) Lu Yau-tung, "An Analysis of Chinese Communist Interpretation of

발표된 歷史解釋에 관한 214 편의 論文을 檢討하여 問題別로 引用한 典據의 頻度를 調査한 결과, 古代史 分期에 관하여는 마르크스와 엥겔스, 近代史 分期는 毛澤東, 漢民族形成의 문제는 스탈린, 資本主義萌芽는 마르크스, 農民戰爭은 毛澤東·엥겔스·레닌의 著作에서 引用한 것이 가장 많다고 하였다. 그는 또 時期別로 보아 初期의 마르크스주의 古典의 引用은 粗雜하여 本文의 內容과 잘 符合되지 않고 있으나 時期가 지날 수록 그 점이 改善되는 동시에, 한편으로 毛澤東의 著作에서의 引用이 增加하고 있다는 점을 指摘하고 있는데, 初期의 中共史學의 傾向의 一面을 巨視적으로 알 수 있는 指摘이라고 하겠다.

다음에 이 時期의 反右派鬪爭에 관하여 간략하게 言及하려고 한다. 中共政權의 成立으로 政治적으로 右派 또는 唯心論에 대한 反對鬪爭 그리고 그 肅清이 當面課題였음은 물론이며, 史學界에서도 그것이 일찍부터 전개되었다.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中國史學會」 成立時(1951年 7月)에 郭沫若이 提示한 中國歷史上의 新紀元을 이루는데 있어서의 6개項의 方案 중의 첫째가 「唯心史觀에서 唯物史觀으로」<sup>28)</sup>였다.

그 첫째의 對象이 胡適(1891~1962)이었다. 胡適은 5.4 運動期에 있어서 그의 「文學改良芻議」(新青年 2—5)로 白話文學을 提唱하여 文學革命의 導火線을 일으키고 國故整理에 애쓴 中國의 碩學으로서 哲學·歷史·文學·宗教 등 여러 方面에 많은 業績을 남긴 人物이기는 하나 急激한 政治的 革命 즉 社會主義 革命에 反對하여 李大釗와는 論爭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胡適은 反右派鬪爭의 最初의 攻擊目標로서 가장 適切한 巨物이라고 指目된 것이다. 中共이 北京에 進入한 數個月 후 즉 中共政權 樹立 5個月 前인 1949년 5월에 胡의 오랜 知友 陳垣(1880~1971)이 胡適에게 보내는 公開狀<sup>29)</sup>을 발표하여 攻擊의 第一矢를 쏘았다. 1950년에는 胡適

History" (Paper read at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History, Sept. 1964, Hong Kong).

28) 註 11 참조.

29) 「北平輔仁大學校長給胡適의 公開信」(人民日報, 1949. 5. 11). 후에 陳垣 自身이

의 아들이 자기 父親(胡適 자신은 中共의 北京進入 前인 1948년에 美國에 亡命, 그 후 自由中國政府의 外交顧問)을 糾彈하는 聲明을 내게 되었고, 1951年末에는 上海에서 胡適思想批判座談會가 열렸는데 顧頌剛(1893~1980), 湯用彤(1892~1964, 「歷史研究」 創刊時의 編輯委員 등도 여기에 參席하였다. 顧는 胡適의 學問的 影響을 많이 받고 후에 中共의 胡適批判의 하나의 根據가 된 胡의 「紅樓夢考證」의 作業을 도운 일이 있으며, 胡適은 「나의 學生」이라고 그를 指稱하였었는데, 이제 顧는 胡를 辛辣하게 비판하는 동시에 自己批判도 하였다.

1954年의 「歷史研究」 創刊號의 發刊詞에서 郭沫若은 胡適의 姓名을 舉論하지는 않았으나 胡의 主張인 「全盤西化論」을 猛烈히 비판하였으며, 같은 해 12月 2日에는 郭이 主宰하는 中國科學院과 中國作家協會主席團의 連席會議에서 「胡適思想批判討論工作委員會」를 組織하여<sup>30)</sup> 胡適의 哲學·政治思想·史學觀點·文學思想·哲學史·文學史·紅樓夢 등을 批判하는 9項을 定하고, 茅盾·胡繩 등 九人이 九組로 나뉘어 자기 報告書를 作成케 하며 郭이 이를 總괄하였다. 中央 뿐만 아니라 地方에도 같은 性格의 組織이 이루어졌으니, 胡適批判이 얼마나 計劃的으로 廣範圍하게 長期的인 反右派鬪爭으로 展開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리하여 胡適 뿐만 아니라 그의 弟子들도 批判을 받거나 自己批判을 하게 되었다. 胡에 이어서 紅樓夢 研究를 더욱 발전시킨 俞平伯과 「太平天國史綱」의 著者로서 알려진 羅爾綱이 그렇다.<sup>31)</sup> 그 후 胡適에 대한 批判은 맹렬하게 계속되다가 1957年에 이르러 다른 史學者들이 批判의 對象으로 浮刻됨에 따라서 胡에 대한 批判은 덜 하여 졌으나 그 후에도 자취를 감춘 것은 아니다.<sup>32)</sup>

自我批判을 하고, 1959년에 79歲의 老齡으로 中共黨의 入黨이 許可되었으나 매우 아이러니칼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30) 新中國紀事 pp. 134~135.

31) 胡適批判에 관하여는 遠, 前揭書 pp. 115~147, 所收의 「把胡適當成個箭靶」(胡適을 하나의 射의 的으로 삼다)에 詳論하고 있다.

32) 「歷史研究」에 보는 批判文을 보면 「稽文甫는 胡의 多元歷史觀」(55年 4期) 任繼愈는 「禪宗史研究」(55年 5期) 齊思和는 「反動唯心觀點」(56年 6期)을

胡適은 中共의 治下를 떠난 學界의 巨物인 까닭으로 中共의 批判을 받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으며, 다음 段階의 鬭爭은 中共 內部의 史學者를 對象으로 하게 되었다. 이 투쟁은 1957 年の 整風運動을 契機로 전개되었으며, 이 整風운동은 그 前年인 1956 년에 시작된 「百花齊放, 百家爭鳴」(以下「雙百」으로 略稱)의 운동과 表裡의 關係를 가진 것이다. 「百花齊放, 百家爭鳴」은 1956 年 4 月 28 日의 政治局의 擴大會議에서 毛가 이를 提唱하고 數日 후인 5 月 2 日의 第7次最高國務會議에서 이 方針을 提出하여 어떤 꽃(즉 學術)이던 다 꽃 피우고, 諸子百家와 그 후의 모든 學說을 論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5 月末에는 中國科學院과 文學藝術聯合會의 會議에서 黨의 宣傳部長이 이를 報告함으로써 史學界에도 波及되게 되는데<sup>33)</sup>, 여기서도 마르크스主義의 指針에 따라서 社會主義의 藝術과 學術의 民主化를 宣揚한다는 것이 要點임은 물론이다.

이 雙百의 方針은 다음 해 2 月과 3 月に 걸쳐서 더욱 強調되는 동시에 바로 「整風運動」과 연결된다는 점이 注目할 일이다. 즉 毛는 1957 年 2 月 27 日의 最高國務會議 第11次 擴大會議에서 「人民內部的 矛盾을 正確히 處理하는 問題에 關하여」(關於正確處理人民內部矛盾的問題)라는 談話를 발표하고, 이를 全國의으로 實踐에 옮기기 위하여 다음 달 3 月 6 日에서 13 日까지 中央政治局은 全國宣傳工作會議를 개최하여 中央과 地方省市의 關係되는 黨員과 教育·文藝·新聞·出版 關係의 非黨員 약 480 名을 召集한 席上에서 雙百운동의 貫徹를 강조하였다.<sup>34)</sup> 毛는 여기에서 社會主義 社會 內部的 矛盾을 分析하고, 그 모순의 解決은 民主的 方法이어야 하는데, 그 具體的 方案으로 團結—批評—團結을 提示하였으며, 矛盾을 해결하여야 할 여러가지 局面 中에서 科學文化 部門은 雙百을 實行하여야 한다고 하며 그와 동시에 毛는 全國의 知識分子 500 萬 中의 1% 또는 2%

비판하였고, 후에는 張若達이 5·4 운동時의 胡를 비판하였다(59年 6月).

33) 新中國紀事 p. 174.

34) 같은 책 pp. 206~207 (2月 27日, 3月 6~13日), 및 pp. 211~212 (4月 27日).

혹은 그보다 약간 적은 數(4~5萬에서 10萬)가 國家에 敵對感을 가지고 있다고도 指摘하였다.

이 雙百의 方針은 그해 4月末부터 展開된 「整風運動」과 直結된다. 4月 27日에 中央政治局은 「整風運動에 관한 指示」(關於整風運動的指示)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整風운동은 毛澤東이 2月(27日)의 最高國務擴大會議과 3月(6~13日)의 宣傳工作會議에서 행한 報告의 思想을 指導하기 위하여 人民內部的 矛盾의 처리는 舉黨的으로 官僚주의·宗派주의·主觀주의를 철저히 反對하여 마르크스主義思想의 水準을 높이고 氣風을 改造하여야 한다고 指摘하였다. 이 指示는 또한 「整風운동」은 마땅히 嚴肅 眞正하고 和風細雨와 같이 온화한 思想敎育운동이어야 하며, 각자 그 身分에 알맞은 批判과 自我批判의 운동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35)</sup>

雙百의 強調는 一見 學術의 研究와 發表의 自由를 연상케 하나, 그것은 矛盾의 해결과 批判과 단결과 관련되어 提起되고 또 整風運動과 直結된 것이라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에 의한 思想統一을 위한 작업에 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臺灣의 宋晞교수는 雙百을 평하여, 「이는 詭計이며, 사실은 反右派鬭爭의 前奏」<sup>36)</sup>라고 評하고 있다.

이와 같은 背景에서 많은 史學者들이 批判의 對象이 되고 또는 自我批判을 강요당하였다. 몇가지 그 顯著한 例를 略述하겠다. 向達은 北京大의 史學科 교수로서 科學院 歷史研究所 第2所의 副所長을 겸하고 「歷史研究」刊行 編輯委의 一員이었다. 그는 中共 建國 직후, 北京大의 동료들과 같이, 郭沫若·范文瀾·翦伯贊·侯外廬 등 巨物級 史學者들을 招請하여 座談會를 가진 席上에서, 中共史學의 문제점에 관하여 考據學의 存在 可能性의 문제를 提起하였다가 郭·翦 등의 비난을 받았다. 1953年 10月에는 史學界의 분위기에 대하여 「침울한 空氣가 歷史科學 研究者의 情熱을 窒息시켰다」고 비난하였고, 整風運動 기간에 史學界가 五朵紅花만을 문제

35) 註 34와 같음.

36) 華岡學報 4期 p.198.

로 삼는 것을 비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1957年 9月 30日의 北京大全體教師大會에서 翦伯贊이 向達에 대하여 思想改造에 抗拒하고 批評에 抗拒한다고 批判한 것을 비롯하여 累次 陳垣·湯用彤·吳晗 등의 批判을 받았다.<sup>37)</sup> 向達의 史學에 관하여 「歷史研究」에도 그의 反마르크스주의 歷史觀點에 대한 胡厚宣 등의 批判(57年 11期)을 비롯하여 鄧廣銘에 의한 비판(같은 11期), 王忠에 의한 비판(58年 11期) 등이 보인다.

또 雷海宗(1902~62)은 1952년에 清華大學에서 南開大學으로 옮긴 歷史科教授며, 天津史學會의 副理事長인데, 1957年 4월에 座談會에서 「마르크스主義는 1895년 英겔스의 죽음으로 停滯되었다」고 하고 오늘에 이르는 62년을 補強하여야 한다고 말하였고 6月 2日에는 奴隸社會 不在論을 主張하는 강연을 하였으며 또 學生들에게 「中國의 知識分子들은 병(瓶)목과 같이 守口不言하는 것이 世界第一이며, 解放 후에 어떤 사람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常套의인 거짓말을 한다」고 極言하였다.<sup>38)</sup> 그리하여 그는 많은 사람들의 批判을 받았고 그의 歷史講義는 금지되었다.<sup>39)</sup> 그밖에 이 시기로부터 1958년에 이르는 사이에 批判을 받은 有名한 史學者 중에는 陳寅恪(당시 中山大學 교수)·陳夢家(考古學者로서 北京大 史學科 교수)·榮孟源·唐長孺·鄧之誠 등이 있다.

### 3. 初期의 研究機構와 研究成果

研究機構로서 中樞의 役割을 한 것은 中國科學院(후에 中國社會科學院)의 歷史研究所로서 이에 관하여는 앞에서言及하였다. 近代의 研究에 관한 科學院의 近代史研究所는 1950년에 成立되었으며,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때 歷史研究所에 合併된 일도 있다. 歷史와 관련된 分野로서 考古

37) 華岡學報 pp. 119~200의 宋의 論文에 의한.

38) 같은 책 pp. 118~119.

39) 「歷史研究」에 실린 그에 대한 批判論文으로 孫定國(57년 11期) 吳廷○(57년 12期), 戎笙(58년 11期) 등의 批判이 있다.

學研究所도 1950년에 成立되어 科學院에 編入되고, 季刊「考古學報」(1950 創刊)·隔月刊「考古」(1955 創刊)를 刊行한다.

國內 各 大學의 歷史科와 研究所 중에서 중요한 것을 列舉하면 다음과 같다.<sup>40)</sup>

北京大 歷史科. 1952 創設.

北京師範大學 歷史科. 同上.

中國人民大學 中共黨史科. 1956.

中央民族學院 歷史科. 1956.

同上 研究部. 1952 成立. 1958 年에 科學院 民族研究所에 편입되었다가 후에 再建.

上海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1956.

上海師範學院 歷史科. 1954 草創.

天津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1958.

天津師範學院 歷史科. 1958 (처음에는 史地科).

上記한 史學科와 研究所는 대개 歷史관계의 學術誌를 出刊하였다.

1949년부터 1958년에 이르는 9年 동안에 中共에서 歷史研究의 結果로 출판된 論著의 數는 잘 알 수는 없으나, 論文이 著書보다 그 수가 매우 많으리라는 것은 推測할 수 있다. 著書(史料도 포함하여)에 관하여 1979 年에 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에서 編輯 出刊한 「七十六年史學書目(1900 ~1975)」에는 9,000여 種의 史學著作이 收錄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이 기간중의 刊行이 약 1,000 種이라고 推算된다.<sup>41)</sup> 따라서 이들에 대하여 言及할 수는 없으며, 다만 中國史의 通史와 五朵紅花에 관한 論文集 또는 討論集에 대하여 言及하겠다.

通史의 著書로서는 鄧之誠(7冊, 54~58年), 周谷城(2冊, 57), 范文欄

40) 中國歷史學年鑑(1979), pp.371~388에 의함.

41) 다음과 같이 推算하였다. 9,000 種에서 外國史 1,500을 除하면 7,500으로 年平均 100 種이다. 本書目에 臺灣出版도 포함되어 있으나, 그 反面에 大戰期와 특히 文革期의 出版激減을 勘案하면 9年餘의 期間에 약 1,000 種이라는 數가 可能하다고 생각된다.

(42, 48, 58 등), 翦伯贊(46~47, 58), 呂振羽(49, 59), 尙鉞(54) 등의 著作이 알려져 있는 것이고 通代的인 史論集으로서 呂振羽·吳晗·翦伯贊 등의 著作이 出刊되었다. 앞에 말한 五朵花에 관한 論文集·討論集 중에서 중요한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 「歷史研究」編輯部, 中國奴隸制與封建制分期問題論文選集(56)
- 同上, 中國古代分期問題討論集(57)
- 「文史哲」編輯委, 中國古代分期問題論叢(「文史哲」叢刊 第2輯, 57)
- 「歷史研究」編輯部, 中國近代史分期問題討論集(57)
- 人民大學, 中國資本主義萌芽問題討論集 2冊(57)
- 「歷史研究」편집부, 中國歷代土地問題討論集(57)
- 趙儷生外, 中國農民戰爭史論文集(54)
- 「歷史教學」月刊社, 中國農民起義論集(54)
- 李光墜 등, 中國農民起義論集(58)
- 「歷史研究」편집부, 漢民族形成問題討論集(57)

史料의 出版으로 特記할 것은 中國史學會 主編 「中國近代史資料叢刊」(神州國光社 刊)이다. 總 76冊의 巨秩인 本書는 義和團·太平天國·國民起義·捻軍·戊戌變法·阿片戰爭·中法戰爭·中日戰爭·洋務運動·辛亥革命·北洋軍閥·五四運動 등 近代의 12의 重大한 史實에 대한 資料를 모은 것으로서 1959年에 完刊되어 中國의 近代史 研究에 많은 便宜를 提供하고 있다. 이 論叢外에 科學院의 經濟研究所에서 編纂하는 中國近代經濟史資料도 이 期間 중에, 近代의 工業史·農業史·手工業史·對外貿易史·鐵路史·航運史 등에 관한 것이 刊行 또는 整理 중에 있었다.

### Ⅲ. 歷史學의 變革期와 受難期(1958~76)

中共의 政權樹立과 그에 따른 唯物史觀의 導入은 中國史學史에 있어서 重大한 轉機였음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 唯物史觀은 現在에 이르기까지 理論上으로는 中共의 歷史學의 根抵이기는 하나 時間의 推移에 따라

서 그 強調하는 面이 달라지며, 특히 中共의 政治의 現實에 따라서 歷史學의 實際가 달라지는 것은 當然한 일이라고 하겠다. 歷史學이 唯物史觀을 基盤으로 삼는 경우에 唯物史觀이 政治와 不可分離의 關係에 있는 까닭으로 歷史學이 政治에 從屬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前言한 바다. 歷史學 뿐만 아니라 모든 文化的 藝術的 研究나 活動은 더 말할 것도 없고, 經濟·社會에 관련된 모든 문제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章에서 다루려고 하는 史學革命과 文化大革命에 관한 문제는 좁게 보면은 歷史學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나, 넓게는 中國의 政治와 관련된 문제다. 그리고 文化大革命의 方向은 一見 歷史學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主로 歷史(歷史의 史實)과 遊離된 문제가 爭點으로 되어 있었던 까닭으로 歷史學의 範疇를 넘어서는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또 文化大革命 기간의 焦點이 되는 儒法論爭은 마르크스·레닌의 唯物史觀이라고 하기 보다, 中國의 變形된 唯物史觀의 適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史學革命과 「厚今薄古」

이 時期의 中共 歷史學이 겪은 두차례의 큰 變革 중의 첫째가 「史學革命」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異見이 없을 것 같다. 그런데 史學革命이 시작된 時期와 그 目的(또는 動機)과 그 發生의 契機에 대하여 論者들의 意見이 一致하지 않는 점이 적지 않다. 먼저 그 論者들의 見解를 略述하고 이들을 綜合하여 보는 것이 이 몇가지 문제를 解決하는 方案이 될 것 같다.

첫째로 「人民日報」1966年 6月 3日의 「奪取資產階級壟占的史學陣地」라는 社說인데<sup>42)</sup> 그 社說의 內容의 大意는 「史學界의 一團의 資產階級的 權威者들은 1958年에 시작된 史學革命을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마르크스주의와 毛思想에 반대하여, 史料를 重視하며, 그들의 歷史主義는 마르크스의 階級學說을 반대하며, 그들은 帝王將相을 稱頌하고 農民과 農民戰爭

42) 遼, 앞의 책 pp. 40~41에 의함.

을 蔑視한다, 그들 중에는 反共의 名手가 있는데 吳晗·翦伯贊이 그러한 人物이라는 것이다.

둘째로 遼교수 자신은 한편으로 上記의 人民日報의 記事를 받아들여 史學革命이 1958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나(史學危機의 呼聲, p. 105 및 p. 106에 두번 言及), 그 자신은 1957年(같은 책 p. 13)이라고 主張한다고 믿어진다. 革命의 目的은 「厚今薄古」와 「先紅後專」에 있다고 하여 이를 詳論하고 있다(같은 책 pp. 13~18 및 103~104).

셋째로 宋晞 교수는 그의 「中共의 史學研究」의 第3節 「從反右派爭到 史學革命(1956~1960)」에서 1958년에 中共은 王朝體制打破와 勞動人民의 歷史를 中心으로 하는 史學革命을 시작하였다고 간단히 叙述한데 이어서 前述한 바 있는 雷海宗·向達·榮孟源 등에 대한 批判을 擧論하고 있다(華岡學報 pp. 198~201). 그런데 이들 批判은 주로 1957년까지 있던 일이기 때문에 宋교수가 말하는 1958年과는 無關하다. 한편 宋교수의 論文의 第4節은 「從大躍退到文化大革命(1960~67)」라는 題下에 이 時期 즉 史學革命 시작 후의 歷史研究의 5個項의 문제를 論하고 있는데, 大躍進(宋교수는 故意로 躍退라 함)과 史學革命의 具體的 연관에 관한 言及은 없다. 또 5個項의 叙述에 있어서도 1959년까지의 言及이 상당히 많다.

넷째로 高柄翊교수는 大躍進운동은 1958年 後半에 들어서면서 시작되면서 이 운동이 歷史學의 分野에서는 史學革命으로 나타났으며, 1958年 3月의 陳伯達의 「厚今薄古 邊幹邊學」이라는 口號가 이 운동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中共의 歷史學」—1974—pp. 35~36).

위의 紹介로서 史學革命에 관한 問題의 所在와 동시에 그 解決의 方向에 대한 摸索이 可能하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세가지 問題 중에서 먼저 이 革命의 目的에 대하여 檢討하겠다. 그 目的에 대하여 一次의인 史料를 參考할 수가 없고, 「新中國紀事」에서도 이에 관한 言及을 發見할 수가 없으나 그것이 「厚今薄古」에 있었음은 分明하다. 1958年

3月 10日 中共의 中央宣傳部副部長 兼 科學院 副院長인 陳伯達이 科學規劃委員會의 第5次 會議에서 「厚今薄古 邊幹邊學」에 관하여 講演하고 哲學과 社會科學의 研究에서 「厚今薄古」를 實行할 것을 規定하였다. 陳은 그 2個月 후에 한 座談會에서 批判的으로 歷史文化의 遺産을 繼承하는 問題를 提起하고, 唯物史觀을 指針으로 하여 새로 中國 全歷史를 系統的으로 研究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sup>43)</sup>

이에 앞서서 毛澤東은 앞에서 말한 「人民內部的 矛盾을 정확히 處理하는 문제」에 관한 發表時(1957.2月)에 「輕視過去·迷信將來」라는 말을 한 일이 있는데, 郭沫若이 이것을 「厚今薄古」라고 解釋하였다고 한다. 陳의 講演이 있는 다음 달인 4月 5日에 北京에서 史學者와 考古學者의 「厚今薄古」에 관한 座談會가 있었고, 같은 해의 「歷史研究」 5月號(5期)에는 卷頭論文으로 郭沫若·范文瀾·陳垣·侯外廬·呂振羽·劉大年 등 6人的 史學界의 巨物의 「研究歷史應當厚今薄古」題下의 글이 掲載되었다.<sup>44)</sup> 이로써 厚今薄古의 方針에 대한 史學界의 呼應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며, 史學革命이 軌道에 오르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提示한 人民日報의 記事에서는 직접 厚今薄古를 舉論하지는 않았으나, 마르크스주의·毛澤東思想과 史料의 對比, 階級學說과 歷史主義의 對比, 農民 및 農民戰爭과 帝王將相의 對比 등은 厚今薄古의 方針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人民日報의 記事는 文化大革命이 發動한 直後의 것이기 때문에 革命的 濃度가 더욱 甚하다고 할 수 있다.

史學革命이 시작한 時期에 관한 문제는 위에서 그 目的에 관하여 厚今

43) 앞에 든 「中共人名錄」附錄 pp.125~126의 陳伯達의 傳記에 의함. 여기에서 陳의 講演과 談話에 관한 記事에 이어서 「史學革命的 前奏」라고 하여 「전주」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은 論議의 여지가 있다.

44) 앞에 든 3月 10日의 陳의 강연과 4月 5日의 座談會의 時期에 대하여 遼교수는 1957年의 일이라고 보고, 「歷史研究」에 郭 등이 發表한 것은 1958年이라고 하여 「歷史研究」가 厚今薄古에 대하여 積極性이 덜하여 遲延되었다(遼 pp.13~14 및 103~104)고 한 것은 錯誤다. 또 「邊幹邊學」에 대하여는 「歷史研究」 58年 9期에 吳廷才의 간단한 文章이 실렸다.

薄古의 문제를 살피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言及되었다. 「厚今薄古」의 原由가 前年인 1957年 2월에 있는 까닭으로 이 革命的 시작의 時期를 遡及 시킬 수 없는 것은 아니나, 史學界의 反應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1958年의 3월에서 5월에 걸친 時期가 그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妥當할 것 같다.

끝으로 史學革命과 大躍進과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우선 대약진에 대하여 간단히 言及하겠다. 大躍進운동은 처음에는 農業의 生産性を 提高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어서 經濟 技術의 모든 分野에 擴大시켜서 社會主義 社會建設을 促進시키려고 한 것이다. 즉 1957年 11月 13日의 「人民日報」의 社說에서 農業生産의 提高를 論하였는데 이때에 「躍進」·「大躍進」이라는 말이 言論에 처음 나타났으며 그 年末에 水利·農田·積肥 운동에 있어서 農業大躍進이 일어났다고 한다.<sup>45)</sup> 그 2개월 후인 1958年 1月 11~22日에 걸쳐서 「南寧會議」가 中共黨部에 의하여 개최되었으며 全面的인 大躍進운동이 決定된다. 여기에서 毛澤東은 「工作方法六十條」의 草案을 作成하고, 生産提高를 위한 任務·方法을 말하고 15年 內外에 英國과 比肩할 수 있도록 하며, 「不斷革命」을 강조하고 技術革命에 重點을 둔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는 또 1956年의 「反冒進」(突進反對)이 「右傾과 促退」를 가져왔다고 하여 이를 猛烈히 비판하였다.<sup>46)</sup>

1958年 3月 3日에 中共의 政治局은 反浪費·反保守운동에 관한 指示를 발표하고 이것은 하나의 社會主義的 生産의 大躍進과 文化的 大躍進운동이라고 하였다.<sup>47)</sup> 여기에서 우리는 大躍進운동이 文化, 따라서 歷史學과 관련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연 郭 등의 「厚今薄古」에 관한 글이 발표된 두달 후의 「歷史研究」(58年 7기)에는 科學院 歷史研究所의 第1, 第2, 第3所는 자기 「躍進計劃制訂」·「躍進中」·「躍進指標」 등의 題

45) 新中國紀事 p. 225.

46) 같은 책 pp. 228~229.

47) 같은 책 p. 231.

目으로 報告를 하고 있다. 그러나 前의 整風운동과 雙百운동의 관련에 하여 이번의 大躍進운동과 史學革命의 密着의 度는 매우 가벼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前者에서는 毛의 主導로 두가지가 推進되고 連結되었으며, 文化와의 관련에서 볼 때 雙百운동은 물론하고 整風운동도 「思想教育」운동이었음에 대하여, 後者에 있어서 史學革命은 毛 自身이 아닌 宣傳部 副部長에 의하여 推進되었고 大躍進은 生産性 提高를 主目的으로 하는 운동이었기 때문이다. 더욱이나 大躍進운동은 中共 自體가 「全面的錯誤」라고 인정하여 5個年 計劃이 3年에 挫折되고 말았는데 대하여<sup>48)</sup>, 史學革命은 계속 推進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다음에 史學革命의 推移에 관하여 살펴 보겠다. 첫째로 厚今薄古에 관한 문제다. 歷史研究所의 1, 2, 3 所의 大字報<sup>49)</sup>가 지적한 바에 따르면 「歷史研究」創刊(1954) 이래 1958年 8月(8기)까지 合 44期에 掲載한 論文 421편 中 古代史에 관한 것이 148편이라는 多數에 이르러 이것이 厚今薄古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였다.<sup>50)</sup> 그러나 厚今薄古는 歷史의 對象時期를 近代에 置重하라는 것이 아니고 「古爲今用」을 위하여 帝王中心이 아니고 農民中心으로, 歷史主義가 아니고 마르크스의 階級理論에 따라서, 그리고 史料中心이 아니고, 마르크스주의와 毛澤東思想에서 歷史를 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王朝體제의 歷史研究를 打破하는 문제는 郭沫若·翦伯贊 등에 의하여 論議가 展開되기 시작하였으며<sup>51)</sup> 이 문제와 表裏의 관계에 있는 農民戰爭의 문제가 이때부터 더욱 중시된다. 農民起義 또는 농민전쟁의 문제는 中央의 初期로부터 五朵紅花의 하나였는데 이 시기에 이르러 더욱 활발하게 論議되며, 단순한 歷史的 史實의 側面보다 그性格에 관한 문제,

48) 같은 책 p. 227.

49) 歷史研究 58年 9期.

50) 逸 p. 103. 筆者가 본 바로는 郭 등의 「厚今薄古」의 논문이 실린 후의 歷史研究 1年分(58. 6기~59. 5기까지)에 中國史에 관계된 논문은 近代 이전 31편, 이후 26편으로 近代 이전이 많다.

51) 翦은 이미 1957年에 「關於打破王朝體系問題」라는 論文을 발표하였다. 또 光明日報 1959. 4. 8 및 1961. 12. 22의 그들의 文章.

舊體制의 支配層과의 對比에서 多角의인 檢討가 이루어졌다.

歷史人物의 評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孔子에 대한 評價 문제다. 孔子에 대한 문제는 이미 新文化運動期의 하나의 중요한 對象으로 되고 있었던 터이며, 中共成立의 初期에도 論議가 있었으나, 그 評價는 오히려 肯定的이었다. 그러나 이제 歷史人物 評價의 문제가 크게 擡頭되며, 孔子에 대한 評價는 批孔에서 儒法論爭으로 연결되는 까닭으로 이 문제는 다음의 文化大革命 時의 문제로서 檢討하려고 한다. 孔子를 除外한다면, 曹操가 가장 많은 論議를 일으켰다. 1959년에 또한 郭沫若<sup>52)</sup>·翦伯贊 등에 의하여 시작된 曹操에 대한 評價는 종래의 惡人에서 一躍 民族의 英雄으로 昇格시켰다. 이 時期에 評價의 對象이 된 人物들 중에는 商의 紂王·商鞅·秦始皇·漢武帝·唐太宗·武后·明太祖·淸의 康熙帝·乾隆帝 등이 있다.

앞에 든 여러 문제에서 다같이 唯物史觀 특히 階級的 觀點이 강조되었으며, 理論의 面을 強調하기 위하여 「以論帶史」라는 口號가 유행하였는데, 지나치게 具體의 史實을 輕視하는 結果가 되어 「以論代史」라는 非難이 나타나기도 하였다.<sup>53)</sup> 「先紅後專」의 先紅은 마르크스주의 理論을 根本으로 삼는다는 것으로서 「以論帶史」와 관련된다.

## 2. 文化大革命과 儒法論爭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史學革命의 口號인 古爲今用은 歷史學의 存立의 基本에 대한 挑戰이며, 古爲今用을 目的으로 한 歷史人物의 再評價는 「歷史의 史實」을 改造하게 되며, 農民과 農民戰爭을 重視하는 나머지 王朝와 帝王將相의 歷史的 存在를 消滅시키며(文化大革命 후에는 王朝史에 대한 反省이 나타난다.) 그리하여 과거의 모든 文化的 遺産은 封建的인 것이라고

52) 이에 관한 郭의 論文은 人民日報 1959.3.23.

53) 光明日報1962.1.4 吳晗「如何學習歷史」, 同 1962.1.3 白壽彝「關於歷史學習的三個問題」등 참조. 뒤의 글은 白「歷史教育和史學遺產」(1983)에 再收 錄히 本書 pp.215~216 참조.

하여 破棄하게 되는 것은 史學革命的 進行에 따른 當然한 歸結이라고 할 수 있다. 「以論帶史」의 「論」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마르크스主義·毛澤東思想이며, 그 要點은 階級鬭爭에 있는 까닭으로 「以論代史」 즉 階級鬭爭만 남고 歷史學은 消滅되는 것이다.

歷史學과 더불어 종래의 史學者들도 消滅할 수 밖에 없었다. 初期에 中共의 歷史學에 있어서 唯物史觀의 土着化의 先驅의 役割을 擔當하였던 吳晗 등이 文化大革命(이하 文革으로 略稱함)이 시작된 直後의 人民日報의 社說(1966. 6. 3. 前述)에서 史學界 資產階級の 保皇黨, 反共의 名手라고 罵倒당하는 것도 不可思議한 일은 아니다. 말하자면, 文革은 史學革命的 進展의 延長線上에 있는 것이며, 文革 후에는 歷史學이 窒息 絕命하여 버릴 수 밖에 없었다.

文革時의 중요한 口號인 「儒法鬭爭」은 歷史的 事實과는 관련이 없이 階級鬭爭을 위하여 政治的 目的으로 造作된 虛構인 것이다. 따라서 中共에 있어서의 歷史學의 潮流라는 問題에서 볼 때에 文革期는 그 潮流의 斷絶의 時期며, 이 時期의 歷史學에 대하여 詳論할 필요는 거의 없으며, 史學革命에서 文革에 이르는 과정과 文革期의 虛構史學에 대하여 그 輪廓을 살피는데 그치려고 한다.

文革의 序幕은 1965年 11月 10日에 上海의 作家協會 理事로서 「萌芽」雜誌의 編輯委員과 上海의 「解放日報」의 主筆로 있던 姚文元이 江青의 直接指導下에 上海의 「文匯報」에 「評新編歷史劇〈海瑞罷官〉」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吳晗을 攻擊함으로써 시작되며, 半年 후인 1966年 5月 10日에 다시 上海의 「解放日報」에 「評〈三家村〉—〈燕山夜話〉〈三家村札記〉的反動本質」을 발표하여 吳晗과 鄧拓·廖沫沙 등을 맹렬하게 공격함으로써 그 序幕이 絶頂에 이른다.<sup>54)</sup>

54) 中共人名錄 附錄 pp. 92~93 「姚文元」條 참조. 姚는 文革 후에도 「紅旗」·「人民日報」 등에 周揚·陶鑄 등을 공격하는 글을 발표하여, 姚는 이른바 「點名批判」(指名批判)의 第1人者가 되었다.

吳晗은 一般史論과 明代史에 대한 著述이 적지 않은데, 특히 明代의 故事를 素材로 「借古諷今」(故事를 빌어서 現實을 諷刺)하는 글을 써서 1960년에 「燈下集」을 내고, 이제 또 「海瑞罷官」을 발표하였다. 이 史劇은 明後期の 剛直한 政治家 海瑞(1514~87)를 主題로 한 것으로서 海瑞는 强者를 억누르고 貧者를 돕는 政策으로 善政을 하였으며, 皇帝를 直諫하다가 投獄되었다가 다시 復職되고 死後에 太子太保를 追贈받은 實在人物이다. 吳晗의 「海瑞罷官」은 1961년에 쓴 것으로 이를 전후하여, 「海瑞罵皇帝」·「海瑞罷官序」를 발표하였고 또 人民日報(1959. 9. 21), 光明日報(1964. 6. 17에 2편) 등에 海瑞에 관련된 글을 발표하여 왔다.

吳晗은 또 鄧拓·廖沫沙와 같이 3人的 共同 匿名인 吳南星<sup>55)</sup>이란 筆名으로 1961年 10月에서 62年 7月에 걸쳐서 北京市委의 機關誌인 「前線」에 「三家村札記」라는 欄에 67次에 걸쳐서 雜文을 발표하여 現實을 非難하고 中共政權의 不合理한 現象을 批判하고 暗暗裡에 諷刺하였다. 鄧도 史家로서 「論中國歷史的幾個問題」(1959)라는 著述을 내고, 1961年에서 1962年 9月까지 「北京晚報」에 발표한 「燕山夜話」 152篇 (후에 5卷으로 北京人民出版에서 出版)도 現實을 풍자하는 글이었으며, 廖는 「亂彈雜記」에서 더욱 격렬하게 現實을 批判하였다.

그리하여 姚文元의 비판이 나오게 되는데 海瑞罷官과 三家村札記가 나온지 數年만에 姚의 비판이 나온 것은 이 攻擊의 계획이 오래 진행되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연상케 한다. 그리하여 三家村 批判文이 나온 겨우 6日만인 1966年 5月 16日에 中共의 中央黨部는 電擊의으로 「五·一六通知」를 발표하고 그해 2月 12日에 이미 決定되었던 北京市委 第1書記 彭眞을 責任者로 하는 「文化革命五人組」를 취소하고<sup>56)</sup> 새로 中央政治局 常委

55) 吳는 北京市副市長 吳晗, 南은 同市委 書記 겸 市委 機關誌 「前線」誌의 主編인 鄧拓의 筆名 馬南邨에서, 또 星은 同市委 統戰部長(후에 市委副主席) 廖沫沙의 筆名인 繁星에서, 中國人名錄 자기 同人條 참조.

56) 彭眞은 곧 三家村集團의 背後者라는 批判을 받고 다음달 6月 3日에 肅清되었다가 1979年에 解放되었다. 中共人名錄 pp. 702~703.

밑에 「文化革命小組」를 두었는데, 姚는 그 組員이 되었다. (組長 陳伯達, 第1 副組長 江青) 姚는 본래 上海의 「文藝月報」의 편집을 맡고 있었는데 1957년 反右派鬭爭時에 文藝月報를 根據地로 삼고 1960년에는 이른바 「反修正主義運動」의 일환으로 「反革命分子」를 攻擊하여 「文化打手」 즉 文化공격의 앞잡이로서 惡名이 높았다. 文化革命이 일어나자 곧 三家村集團<sup>57)</sup>과 뒤이어 彭眞도 反黨·反社會主義·反毛의 罪目으로 肅清되고, 北京市委와 北京大黨委 및 北京日報와 北京晚報는 改編되고, 北京의 黨政의 主要幹部 20여명이 連累되었으며, 雜誌 「前線」은 停刊되었다.

앞에서 말한 것은 歷史學과의 관련에서 文革에 관하여 言及한 것이며, 毛澤東의 意見에 따라서 文化大革命을 全國적으로 發動시키기 위한 中共政治局의 擴大會議가 5月 4日(1966)부터 개최되어 그 달 26일까지 계속하였으며, 이 회의에는 中央政治局委員과 관련된 部署의 責任者 78名이 참석하였으며 여기에는 「文化小組」(바로 후에 正式으로 成立된 「文化革命小組」)가 提議한 江青·張春橋·關鋒·戚本禹 등 8名을 포함한다. 여기에서 다른 세가지 案件 중 첫째는 羅瑞興·陸定一·楊尙昆 등에 관한 것으로, 이들은 각기 劉少奇 支持와 軍事的 政變計劃, 文化界에 있어서의 反黨·反毛, 그리고 反毛·親蘇의 혐의로서, 文革의 1次的인 障礙로서 그 肅清을 결정한 일이다.

案件 중 둘째가 바로 「5·16通知」며, 셋째가 文革의 理論·路線 및 方針의 確定이다. 셋째는 곧 學術界를 비롯한 文化的 各領域의 領導權이 無產階級的 手中이 아니고 反黨 反社會主義의 資產階級을 代表하는 人物들의 手中에 있는 까닭으로 無產階級은 文化大革命의 旗幟 아래에서 學術界를 비롯한 文化界의 資產階級的 代表人物을 批判 肅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5月 18日의 第3次 全體會議에서 陳伯達은 長廣舌로 毛澤東은 「天才」로서 그의 말은 言言句句가 眞理이며, 毛에 反對하는 者는 「全黨共誅之 全國共誅之」라고 강연하였다. 이로써 우리는 文革의 性格을 알 수 있다.

57) 吳晗은 이미 그 전에 自我批判을 한 일이 있다. (北京日報 1966. 1. 13).

文化革命小組는 組長 陳伯達, 顧問 康生, 副組長 江青·張春橋 등, 組員은 王力·關鋒·戚本禹·姚文元 등으로 구성되었는데 8月末에 江青이 이小組의 組長이 되어 文革의 領導權을 잡게 되었다.<sup>58)</sup>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三家村集團은 곧 肅清되었으나, 그들에 대한 批判은 계속되었고 특히 吳晗에 관하여 「歷史研究」1966年 2期는 그에 대한 批判 一色이었다. 즉 關鋒과 林傑은 卷頭論文으로 「海瑞罵皇帝」와 「海瑞罷官」이 反黨 反社會主義의 2大 毒草라는 批判과 아울러, 武任年の 吳에 대한 反社會主義的 歷史人物評, 吳의 思想에 대한 批判으로 李士僅 外 7名의 分野別 批判, 그밖에 施慶과 江西省의 한 調查組의 批判文이 실려 있다. 이와 같이 어떤 地方의 한 特殊한 組의 文章이 言論에 나타나는 것은 文革期의 하나의 특징이다. 또 海瑞에 관한 研究論著가 文革前 5個月間 (1965年 12月에서 66年 4月까지)에 贊反論을 論外로 하고 120편을 넘던 것이 文革期에는 66년에만 겨우 6편이 있고 (이들은 물론 吳晗 批判의 立場) 그밖에는 없다가, 文革 후 즉 1978년 이후 1981년까지 약 20편이 나타난다는 사실<sup>59)</sup>도 文革期에 研究와 發表의 길이 막혀 있었다는 하나의 實證이다.

1966年 5月 4日에서 26日에 걸친 中共政治局의 擴大會議에서 論議된 셋제의 문제 즉 無產階級에 의한 文化界의 資產階級 代表人物을 批判 肅清하는 일이 곧 文革의 課題며, 이 課題를 實踐에 옮기는 것이 紅衛兵이다. 그 시초는 5月 下旬에 清華大學과 北京大學 兩校의 附屬中學出身의 革命 幹部·工場 勞動者, 中下層 貧農家 出身의 一部 學生들에 의하여 「紅衛兵」·「紅旗戰鬥小組」(이하 紅衛兵으로 通稱) 등 群衆組織을 결성하고 校內에서 批判活動을 展開하기 시작한 데 있다. 그리고 6月 1日에는 文化革命小組의 組長인 陳伯達의 指示에 따라서 人民日報의 社說에서 幹部和 知

58) 新中國紀事 pp.398~399. 人物에 대하여는 각기 中共人名錄 참조.

59) 張德僖著 「明史海瑞傳校注」(陝西人民出版社, 1984)의 附錄에 의함. 海瑞傳의 本文이 3千字에 未達하는 것인데 대하여 2萬字를 넘는 校註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도 文革 후의 解禁의 혜택일 것이다.

識分子에 대한 迫害와 鬭爭을 선동하였음에도 不拘하고 7月末까지 비교적 큰 騷亂이 없었던 것은 같은 6月初에 劉少奇·鄧小平 등이 主宰하는 政治局의 擴大會議에서 文革을 推進하는 8條의 指示를 내렸기 때문이다. 그 8條에는 大字報·示威·大規模의 聲討會·黑幫(「資產階級」의 專門家·學者·權威者·棟梁 <中國語로 祖師爺 즉 英語의 boss>)의 家宅 包圍 등을 禁止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8月 1日에 이르러 毛澤東이 紅衛兵의 要請에 따라서 그들의 적극적인 行動을 「熱烈히 支持함을 表示」하는 書信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제 紅衛兵運動은 燎原의 불같이 全國에 波及되었다.<sup>60)</sup>

그리하여 文革의 推進者들이 주장하는 「史學界裡資產階級的保皇黨」(史學界 內的 資產階級的 保皇黨, 保皇黨은 물론 皇帝體制로써 代表되는 舊體制的 守護者의 뜻)과 「資產階級霸占的史學障地」(前述한 1966. 6. 3 人民日報 社說의 題目)는 무너질 수 밖에 없었다. 前者는 곧 資產階級的의 唯心主義 史學者로서 이들은 吳晗·翦伯贊은 물론하고 舊社會에 服務하거나 新社會에 적극적으로 順應한 史學者로서 비록 그들이 「改造」를 거쳤다고 하여도 그들의 立脚點은 하나의 小資產階級的의 王國에 있으며, 資產階級的의 世界觀을 버리고 無產階級的의 世界觀을 樹立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既成의 모든 史學者는 批判·肅清·迫害의 對象者가 될 수 밖에 없었다. 中共史學界의 巨物 中の 巨物이었던 郭沫若은 또한 蔣介石과 毛澤東·江青·華國鋒에게 卑屈하게 阿諛하기로 有名하였으나, 文革期에는 自我批判을 하고 科學院과 黨政의 中心에서 물러날 수 밖에 없었다.<sup>61)</sup> 그리고 資產階級的의 「史學障地」는 마르크스주의와 毛思想을 기초로 中共 歷史學의 牽引車의 任務를 담당하여 온 「歷史研究」를 뜻하는 것인데, 앞에서 말한 吳晗批判 特輯을 발행한 후 곧 停刊되었으니 資產階級的의 史學障地가 粉碎된 것이다. 다른 歷史關係의 刊行物도 같은 運命을 겪었다.<sup>62)</sup>

60) 新中國紀事 pp. 400~405.

61) 中共人名錄 附錄 pp. 138~140.

62) 主要한 歷史關係의 刊行物과 그 停刊에 關係 「中國歷史學年鑑—1979年」, pp.

이러한 狀況에서 純粹한 歷史의 研究는 물론하고 歷史에 관련된 연구, 唯物史觀에 관한 理論 조차 행하여질 수 없고, 그러한 成果가 書籍으로 刊 行될 수도 없었다. 本稿 第1章 第3節에서 言及한 社會科學院 歷史研究 所刊「七十六年史學書目(1900~1975)」에 보아도 文革期의 末期, 즉 1973年 이후를 除外하면 書籍 出版이 거의 없다.<sup>63)</sup> 唯物史觀에 立脚한 經濟史(五 朵花를 포함하여)나, 또는 自然科學이나 藝術에 관한 것조차 없다. 73年 이후에 出版物이 나타난 점에 대하여는 다음에 言及하겠다.

이와 같이 歷史學을 포함하여 文化의 全分野가 窒息하고 말았다. 그 理由는 紅衛兵의 亂動이 長期化한데 있으며, 한편으로는 中共 內部的 權力 鬭爭이다. 각기 毛의 後繼者로 指目되었던 劉少奇와 林彪의 肅清이 그 端的인 表現이다. 前者에 대한 批判은 1966年 11月에 시작하여 1969年 11月 拘禁中 死亡에 이르며, 後者의 문제는 1968年 7月에 시작하여 1971年 9月의 死亡에 이른다. 그 후에야 文革을 推進하는 理論的 實踐的 鬭爭方 案을 歷史와 結付시켜서 「儒法鬭爭」이라는 虛構를 造作하기에 이르렀다. 四人幫 除去 後에 中共의 史學者들은 이를 「影射史學」이라고 呼稱하는데, 「影射」는 남의 그림자를 쓰아서 그를 害롭게 한다는 뜻에서 남의 名義를 盜用하여 眩惑한다는 말로 쓰이며, 「含沙射影」은 陰險한 手段으로 남을 害롭게 하는 것으로서 바로 이 뜻이 「影射史學」에 숨겨져 있는 것이라 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觀點에서 볼 때에 文革期의 「儒法鬭爭」 문제에 대하여 悵惶 하게 論할 필요는 없으며 극히 간략하게 그 推移를 살펴보겠다. 紅衛兵의 恒續的 騷亂과 黨內의 權力鬭爭 및 肅清으로 點綴된 文革의 進行에 대하 여 一大反省과 새로운 進路를 모색한 것이 1973年 8月 24日에서 28日

355~382 참조.

63) 筆者가 檢出한 바로는 例外로 1971年 1冊(義和團運動), 1972年 6冊(阿片戰 爭 3, 戊戌變法 1, 義和團 1, 考古學 1), 合 7冊이 있다. 考古學을 除하면, 다 近代史며, 7冊 中 4冊이 文革中에 「編寫組」가 편찬한 것이다.

에 걸쳐서 北京에서 舉行된 中共 第10次 全國代表大會로 여기에는 2800萬 黨員을 代表하여 1249名이 參席하고 毛澤東이 이를 主宰하였다. 이大會는 「林彪事件의 發生은 文革의 理論과 實踐의 失敗」를 認定한 것이었는데 文革의 左傾方針에 變更이 없었던 까닭으로 후에 江青·張春橋 등의 政權奪取의 策謀를 발생케 한 것이다. 한편 鄧小平·烏蘭夫·譚震林·廖承志 등 文革 중에 排斥되었던 人物들이 中央委員(195名)에 選出되었다. 十大大會의 10日 후 즉 9月 8日에서 11日까지 國務院의 科教組는 教育戰線에 있어서의 孔子批判 問題에 대한 座談會를 개최하고 各省·市·自治區 大學의 教育關係 責任者 98名이 會合한 가운데, 中山大學의 楊榮國은 「儒法兩家的鬭爭和孔子反動思想的影響」이라는 報告를 하였다. 科教組의 責任者 遲群(본래 中共 新華印刷廠의 書記로서 四人幫에 加擔, 梁效라는 變名으로 후에 「歷史研究」 등에 論文을 발표—中共人名錄 附錄 p. 221)은 「批孔으로 黨의 十大大會의 精神을 貫徹하고 批林整風의 大事件을 깊이 理解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文革과 儒法鬭爭의 結付와 또 批孔과 批林的 連關을 알 수 있다. 이 한달 후인 10月初에 周恩來는 遲群의 發言을 批判한 일이 있다.<sup>64)</sup>

批孔의 由來에 관하여 前述한 바와 같이 中共 史學의 初期에도 孔子에 대한 評價가 있었으나 대체로 肯定的인 것이다. 史學革命 후 山東歷史學會와 山東大學 歷史研究所가 1962年 11月과 12月에 2次에 걸쳐서 「孔子討論會」를 개최하였다. 1次의 會議에는 呂振羽·稽文甫·馮友蘭·金兆梓 등 巨物이 참석하였으나 구체적 結論에 이르지 못하였고, 2次會議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 周予同·楊榮國·關鋒 등은 孔子評價는 반드시 毛澤東思想 指導下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데 대하여, 같은 마르크스주의자인 中山大學의 劉節은 孔子는 超階級的인 人物로 다루어야 한다<sup>65)</sup>고 하였다. 그러나 大勢는 批孔으로 기울고, 孔子는 四舊 즉 舊文化·

64) 新中國紀事 pp. 529~530 및 531~532.

65) 劉節은 「孔子唯仁論」(「學術研究」—1962년 3月)과 그 밖의 論文에 孔子에 대

舊思想·舊風俗·舊習慣의 主要한 支柱라고 하며, 1969年에는 5·4運動 50週年 紀念을 위한 人民日報·解放日報·「紅旗」의 3社 聯合社說에서 打倒孔家店」을 강조하는 동시에 劉少奇를 孔孟之道를 宣揚하여 多數의 青年을 害毒하는 者라고 指摘하였다. 다음해 7月에는 山東省 革命委員會 發表의 文章에서 孔子는 「沒落한 奴隸主階級の 教育家」라고 評하였다. 楊榮國과 羅思鼎(一名 石倉) 등이 前後하여 批孔論을 展開함으로써 이른바 影射史學의 기초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特記할 것은 그들에 의하여 孔子가 批判되는 反面에 法治主義者인 秦始皇의 歷史上의 位置가 急激하게 格上된다는 점이다.

「歷史研究」의 停刊은 資產階級の 史學陣地의 打倒를 뜻하는 것이지만 文革派가 主張하는 「奪取」는 아니었다. 그리하여 文革派의 「史學陣地」로서 뒤늦게 나타난 것이 十全大會가 끝난 후 20일이 안된 1973年 9月 16日에 創刊된 「學習與批判」이다. 그 目的은 더 말할 것도 없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思想의 領導下에 修正主義와 資產階級을 批判하고……社會革命을 侵透시키며 無產階級の 獨裁를 鞏固히 하는데 貢獻」(創刊詞)하는 것이었다.<sup>66)</sup> 이 雜誌는 上海復旦大學의 出版이나, 그 責任者는 張春橋·姚文元直系의 羅思鼎이었다. 文革派의 影射史學의 陣地로서 이밖에 江青이 直接 指導하고 梁效 즉 遲群이 責任者인 「北京大學學報」와 毛의 指示로 1974年 12月에 復刊이 許可된 「歷史研究」가 있고 그밖에 日刊紙 人民日報·文匯報·北京日報와 잡지 紅旗가 있었다. 「學習與批判」과 「紅旗」등 上海의 出版物에는 儒法鬭爭歷史에 관한 글이 150편을 넘고, 北京에서 梁效 主導下에 발표된 같은 性格의 글도 70편에 이른다고 한다.<sup>67)</sup>

1974年에 「北京大學學報」第5期와 第6期에 「儒法鬭爭史概況」을 連載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3期로 나누고 있다.

한 議論을 開陳하였다. 劉鄧에 대한 직접 批判은 光明日報 1963.8.20, 同 11.10 등.

66) 「學習與批判」은 滿 3年 후 1976年 9月 四人幫의 沒落時 廢刊된다.

67) 遙, 앞의 책 p.32.

- (1) 春秋戰國奴隸制에서 封建制 轉換時의 유법투쟁
- (2) 秦始皇 中國統一 후의 封建社會의 유법투쟁, 특히 여기서 內容上으로 유법투쟁의 階級기초, 力量對比, 政治內容, 투쟁形式의 넷으로 나누고 時間的으로는 秦始皇에서 西漢 中期, 同 後期에서 五代, 宋元, 明清의 네 段階로 나누고 있다.
- (3) 中國近代資產階級の 民主革命 時期의 유법투쟁

이 이후의 儒法鬪爭 문제에 대하여는 言及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sup>68)</sup> 한 가지 附言할 것은 復刊된 「歷史研究」는 文革派의 陣地로 利用되었고, 1976년에 이르러서도 「要繼續批孔」(第1期), 「孔丘是個陰謀家」(第2期) 등 批孔의 文章이 계속 掲載되었고, 그해 6月 出刊된 同誌(第3期)에는 「文化大革永放光芒」이라는 特別卷頭文章이 실렸는데, 이 글은 「人民日報」·「紅旗」雜誌·「解放軍報」編輯部 3 者의 共同으로 「中共中央 1966年 5月 16日 〈通知〉十周年」을 紀念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것은 마치 文革의 終結과 文革派의 末路를 葬送하는 글이 되고 말았으니 아이러니컬하다고 할 수 밖에 없다.

### 3. 變革期와 受難期の 成果

文化大革命이라는 歷史學의 受難期는 물론하고 그 앞의 變革期에 있어서의 歷史學의 成果는 草創期에 比하여도 높이 평가될 수는 없으나 變革의 初期에는 草創期の 餘勢로 多少 擧論할 것이 있다. 첫째로 歷史관계의 研究機構로서 새로 나타난 것으로 「中國社會科學院 民族研究所」(1962 成立 「民族研究」·「民族語文」·「民族譯叢」發刊), 「人民大學 清史研究所」가 前身인 「清史研究小組」가 1972 년에 성립, 1971 년에 上海師範大學에 設立된 「24 史標點組」가 후에 (1978) 「古籍整理研究室」로 改稱, 「天津社會科學院歷

68) 本節의 儒法鬪爭에 관한 部分의 敘述에서는 주로 遼, 「批孔, 革命史學의 樣板戲」와 「儒法鬪爭解釋體系의 形成與批判」(위의 책 pp. 1~23 및 pp. 25~68)을 참조하였다.

史研究所」(1958 년에 設立), 天津師範學院歷史科 (1958 년에 설립) 등이 있다.

資料集으로 近代史에 관한 것이 많이 出刊되었는데 「近代史資料」總 25 號(辛亥革命)에서 總 35 號까지 (近代史研究所史料編譯組, 1961~65), 따로 「太平天國史料叢編簡輯」6 冊(太平天國歷史博物館, 1961~63)이 있고, 「中國近代工業史資料」(陳眞 등 著)가 前期에 이어서 2, 3, 4 輯이 出刊되고, 「中國哲學史資料選集」7 冊(科學院 哲學研究所, 1960~64) 등이 있다.

叢書에는 文革期에 出刊된 「中國近代史叢書」의 一部로 「戊戌變法」2 種(1972, 73), 「義和團運動」(1972), 「辛亥革命」(1972) 등이 있고, 「中國歷史小叢書」는 하나의 歷史的 事件이나 人物을 다룬 것으로서 人物에 관한 것으로 孔子·荀子·吳起·秦始皇·曹操·文天祥·李贄에 관한 책들이 나왔다.

五朵紅花에 관한 論文集·討論集은 前期보다 적으며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中國古代史 分期問題討論集, 江西省歷史學會(62)
- 中國封建社會土地所有形式問題討論集 上·下, 南開大學歷史科(62)
- 中國資本主義萌芽問題討論集, 續篇, 南京大學歷史科(60)
- 中國封建社會農民戰爭問題討論集, 史紹賓(62)

通史로서는 范文欄의 「中國通史簡編」第 2 編(修正本, 58)이 특기할 것이고, 呂振羽의 「簡明中國通史」(修正本, 59)가 나왔다. 吳澤·束世徵의 「中國通史基本理論問題論文集」(60)도 있다. 個人的 論文集은 呂振羽(1960), 郭沫若(61), 白壽彝(62), 鄧拓(59), 劉大年(近代史, 65)의 것이 있다.

批孔과 儒法鬭爭에 관한 著作에 言及하면 孔子와 儒家의 批判에 관한 것이 1973 년에서 1975 년까지의 2 年餘의 期間에 近 40 冊에 이르며, 儒法鬭爭에 관한 것도 1974 년과 1975 년 사이에 20 여책이나 出刊되었다.<sup>69)</sup>

69) 「七十六年史學書目」에 의하였는데, 이 書目은 出版物을 망라한 것은 아니라 고 생각된다. 한편 遼교수에 의하면 1973 年에서 1976 年에 이르는 3 年 間에

#### Ⅳ. 歷史學의 再建期(1976~86)

1976年 9月 9日의 毛澤東의 死亡과 이에 뒤이은 江青 등 四人幫의 沒落은 10年間 계속된 「文化大革命」의 動亂에 終止符를 찍었다. 그리하여 中國의 政治界와 社會는 새로운 局面을 맞이하게 되며, 歷史學의 分野에서도 10년의 衰殘과 窒息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氣運으로 歷史學의 再建을 위하여 출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史學革命의 時期까지 습하면 18年間 史學界가 받은 傷痕은 쉽게 治癒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影射史學의 批判과 再出發을 위한 態勢의 整備에 적어도 數年の 時日이 所要되었다. 本章에서는 그 第1節에서 影射史學에 대한 批判과 史學界의 再整備를 위한 努力에 관하여 간단히 言及하고 第2節에서 1986年 頃에 이르는 時期까지의 歷史學의 傾向을 살펴보려고 한다.

##### 1. 影射史學의 批判과 史學界의 再整備

影射史學에 대한 批判은 주로 두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文革의 中心人物 즉 四人幫을 중심으로 한 影射史學의 案出者들 個人과 그들의 活動에 관련된 것이고, 또 하나는 影射史學 自體에 관한 것이다. 四人幫의 沒落 直後에 發刊된 「歷史研究」(76년 6기—76년 12月刊)의 紙面の 半을 그 批判에 充當하였는데 論題들을 보면 다음의 7편이다.

「歷史研究」가 겪은 四人幫의 歷史를 利用한 反黨陰謀

梁效와 羅思鼎批判

史學領域의 階級鬭爭과 四人幫의 反革命復辟野心

四人幫이 秦漢時階級鬭爭歷史를 歪曲한 奇談怪論에 대한 評

---

儒法鬭爭, 水滸傳批判, 反右派鬭爭, 資產階級 등에 관한 圖書가 1403種이며, 이는 同期間의 모든 哲學·社會科學圖書의 4分 1을 넘으며, 儒法鬭爭에 관한 것이 907種이라고 指摘하였다. 遂, 앞의 책 p.37.

四人幫의 批孔假托에 대한 評  
 狄克에서 四人幫에 이르는 狗頭軍師  
 法家學說의 歷史的 변천

처음의 2 편은 「歷史研究」編輯部, 그 다음의 1 편은 歷史研究所 「中國史稿」編寫組, 나머지 4 편은 個人的 單獨 또는 共同執筆이다. 이 들 7 편 중 影射史學에 重點을 둔 것은 끝의 1 편이며, 그밖의 것은 주로 四人幫에 대한 것이다. 1977年 「歷史研究」 合 6 輯 속에는 약 30 편의 批判文이 실려 있는데, 그 중에 儒法鬪爭에 대한 綜合的 또 時代別 論評은 6·7 편에 그치고 그밖에는 주로 四人幫에 관한 것이다. 「歷史研究」는 다음해 1978 年에도<sup>70)</sup> 많은 批判文을 실었는데, 儒法鬪爭에 관한 批判이 많아진다.

四人幫에 대한 批判은 政治的으로 많이 利用된 것도 사실이다. 당시 政治的 實權者인 華國鋒을 비롯하여, 鄧小平·葉劍英은 公席上에서 그들을 批判하는 것이 例事였으며, 이것은 1979年 頃 까지 계속되다가, 그 후에는 덜하여진다.<sup>71)</sup> 그리고 文革中에 批判을 받고 迫害당한 人物들의 復權 또는 伸冤에 관한 문제 등도 短時日에 解決되지 못하였다.<sup>72)</sup>

이와 같은 事實은 文革 다시말하면 四人幫의 餘波가 남아 있었다는 事實을 뜻하는 것이며, 中共의 歷史學의 종합적인 再整備도 時間이 所要된 것이라고 믿어진다. 再整備의 시작은 1977年 8月 12~18日의 中共 11次 全國代表大會에서 華國鋒이 政治報告를 한 가운데, 古爲幫用의 影射史學은 文革集團이 마음대로 偽造한 歷史라고 指摘한 것이 促進劑가 되고, 9月 7日에는 教育部가 全國의 小·中學校의 教材에서 文革派에 관련된 모

70) 歷史研究는 1978年과 1979年에 자기 年 12輯을 발행하였는데, 그 前과 그 後 現在까지 年 6輯이며, 1950年代에 12輯을 낸 때가 있다.

71) 「新中國紀事」에 보면 그들 首腦가 公席에서 論及한 例는 年 10次 以上이며, 重要한 事案이 있을 때마다, 文化大革命과 四人幫을 비난하고 있다.

72) 1978年 11月 10~12月 15日에 北京에서 개최된 中共中央의 工作會議에서 陳雲·胡耀邦 등이 이 문제를 提起하였고 (新中國紀事 pp. 641~643), 地方에서는 그 處理가 늦어졌다. 例를 들면 吉林省에서는 1980年에 이르러 한 伸冤사건이 처리되었다(같은 책 1980. 3. 24, p. 692).

든 내용을 削除할 것을 指示하였다. 史學界에서는 같은 무렵에 遼寧大學에서 全國的인 史學討論會를 개최하여 科學院의 歷史研究所를 비롯한 各地의 43개의 기관의 史學者들이 參集하였다. 여기서 黎澍는 「評四人幫의 封建專制思想」<sup>73)</sup>이라는 論文을 발표하고, 각지의 史學者들이 논문을 발표하였고, 影射史學에 관한 문제로서, 儒法鬭爭문제, 奴隸制에서 封建制로 轉換하는 過程에서의 復辟·反復辟의 문제, 歷史人物評價에 대한 古爲今用的 문제, 農民戰爭의 作用에 관한 문제를 廣汎하게 討論함으로써 影射史學의 輪廓이 밝혀지는 동시에 이로써 「影射史學에 대한 批判의 方向이 提示되었다. 한편 「歷史研究」編輯部도 儒法鬭爭문제에 대하여 各地의 史學者들을 招請하여 一連의 座談會를 개최하였다. 여기에서 (1) 歷史上에 과연 儒法 두갈래의 鬭爭이 있었는가. (2) 있었다면 언제까지 계속하였는가 (3) 儒法合流說은 妥當한가 (4) 法家를 어떻게 評價하는가 (5) 復辟과 反復辟의 문제 (6) 儒家思想은 批判的으로 繼承할 수 있는 것인가, 등에 대하여 討論하였다(歷史研究 77년 4기 참조). 이들 중 儒法鬭爭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그 후의 議論은 否定的인 것이었다.

1978年 7月 中旬에 「歷史研究」編輯部는 全國의 규모로 天津에서 「全國史學規劃會議」를 개최하여 「中國歷史學發展草案」을 作成하였고, 다음 해 3月 23日부터 11日間 中國社會科學院 主催로 成都에서 개최한 「規劃會議」에서 앞의 草案을 土臺로 討論하였다. 이 두번째 會議에서 黎澍는 史學發展에 필요한 留意點으로 몇가지 점을 提起하였는데, 즉 分擔研究와 研究方法, 새로운 力量培養, 高等教育機關과 研究機關의 關係, 각종 專門의 問題의 研究會 設立, 歷史資料의 整理와 出版, 地方史 研究, 研究活動의 現代化 등의 매우 광범한 問題를 포함한 것이었다.

1979年은 中共의 建國 30週年인 동시에 5·4運動의 60週年이며 唯物史觀이 中國에 導入된 60週年이기도 하다. 그리하여 唯物史觀을 基調로

73) 「歷史研究」1977. 6期.

하는 中共의 歷史學界에 있어서 뜻 깊은 해라고 할 수 있다. 이 해에 成都에서 개최된 「中國史學規劃會議」는 中國史學의 오랜 窒息에서 벗어나서 새 出發을 하는 하나의 중요한 契機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歷史研究」(79年 11기)는 黎澍의 「中國社會科學三十年」이라는 卷頭論文을 실었고, 한편 「中國史研究」(季刊, 79年 3기)는 「中國史學三十年的回顧與展望—慶祝建國三十週年部分史學家筆談」이라는 題目으로 周谷城·侯外廬·鄭天挺·尙鉞·徐中舒·胡厚宣·謝國禎 등 11名の 史學者가 分野別 또는 問題別로 過去를 回顧하고 未來를 展望하는 글을 썼다. 影射史學의 整理와 歷史學의 새 出發이 이 무렵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 2. 再建期 歷史學의 輪廓과 傾向

1976年末 中共의 歷史學은 文革期의 窒息에서 벗어나기는 하였으나, 前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음의 약 13年 동안은 再建을 위한 하나의 準備期로서 그 時期의 研究의 成果는 滿足할 만한 것이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체로 1986年末까지 이르는 사이에 中共의 史學界는 研究를 위한 機構, 研究活動, 研究 成果와 工具 등의 出版 등은 매우 急速하게 발전하였고, 研究의 方法에 있어서도 相當한 進展을 나타내고 있다.

이 時期의 歷史家의 傾向에 대하여, 于先 表面的·量的인 면에서 살펴 보면 研究機關이나 大學의 史學科와 研究所가 놀랄 정도로 팽창하고, 歷史關係의 專門誌와 관련된 學術誌도 매우 많다. 文革期에 中斷되었던 것은 대부분 1977년과 1978년 경에 復活하였고, 새로 시작된 것도 상당히 많다.

첫째로 復活하거나 새로 設立된 機構와 定期刊行物 중에서 중요한 것을 들겠다.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中國史研究」季刊, 1979. 「中國史研究動態」月刊, 1979.

同上 近代史研究所, 「近代史研究」季刊, 1979. 「近代史資料」1978 復刊.

國家文物局古文獻研究室 1978 設立.

北京師範大學史學研究所 1978 設立.

中國人民大學歷史科 1978, 이 大學의 歷史關係의 定期 出版物로 「先秦·秦漢史」·「魏晉南北朝隋唐史」·「宋遼金元史」·「明清史」 등이 있다.

北京教育學院歷史教研室

上海教育學院歷史科 1978 重建.

이밖에 각 大學에서 出刊하는 學報는 枚舉할 수가 없다.<sup>74)</sup> 研究機關이 大學이 아닌 某某編輯部刊 등의 歷史學報도 相當數에 이르며, 重要한 것도 있다. 「歷史研究」(1974 復刊)를 비롯하여 「歷史教學」(1979 復刊)·「考古」(1972 復刊)·「文物」(同上)·「考古學報」(同上)·「考古與文物」(1979 創刊) 등이 있다. 이밖에 地方의 史學 關係의 學會와 그 學會들이 出版하는 學報도 있다.

史學界의 活動에 대하여는 앞에 든 歷史研究所의 月刊 「中國史研究動態」가 그 消息을 傳하고 있으며, 「中國歷史學年鑑」에는 이에 有關한 欄이 있는데, 그 하나의 例로서 同書 1983 年 刊行編에는 1982 年에 있었던 史學 關係 討論會 등의 紀事가 약 90 件 비교적 상세히 실려 있다. 물론 이들에 紹介된 것은 史學界의 活動의 一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史學 關係의 著書와 論文은 1979 年 이후 每年 發刊되는 「中國歷史學年鑑」<sup>75)</sup>에 의하여 그 數를 보면, 1979 年에 著書(一部 再版과 資料를 포함)는 약 300 種, 論文 3 千편이던 것이(中國史에 限함) 그 후에는 著書 약 500 種에서 700 種, 論文은 5000 편에서 1 萬편을 넘으며, 每年 증가하는 趨勢에 있다. 이 밖에 世界史는 中國史에 比하여 그 10 分の 1 도 안된다.

近代 以前(明清時代 즉 19 世紀 初 까지를 보통 古代史라고 한다)과 近代 이후(現代를 포함한다)의 比重은 近代가 古代보다 若干 더 많은 것이

74) 전에 든 「中國歷史學年鑑」의 「史學研究機構」欄을 참조.

75) 1979 年分은 冊表題도 같으나, 그 후에는 冊表題보다 內容은 「1 年前의 것이 다. 例를 들면 1985 年 分의 冊表題는 1986 年으로 되어 있다. 또 이 年鑑에 收錄된 著書와 目錄이 網羅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보통이다. 이것이 中國의 歷史學에 있어서의 하나의 특징이며, 또 하나의 특징은 「歷史理論」의 比重이 상당히 크다는 점이다. 歷史理論이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가 말하는 것과는 다르며 唯物史觀의 문제와 五朵紅花의 문제(漢民族形成은 보통 古代史에 포함시키고, 資本主義萌芽문제는 때로는 「理論」에 때로는 「近代」에 포함시키고 있다)의 대부분이 여기에 屬한다. 그리고 近代史(阿片戰爭 이후)와 現代史(5·4 運動 이후)의 著書와 論文의 數의 比重이 비슷하다는 것도 또한 中共에 있어서의 歷史學의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5·4 運動에서 1986年까지의 67年의 歷史는 時間的으로 中國의 4千年 歷史의 60分의 1에 該當되는데, 中國의 史學者들의 關心과 努力의 4分의 1이 이 現代史에 集中되고 있다는 것이며, 이 점에 대하여 우리는 異常하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우리는 이 時期의 歷史學에 대하여 內容的인 面에서 살펴보려고 한다. 여기서 첫째로 中共의 歷史學의 基盤이 되고 있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毛澤東思想이 이 時期에 歷史學 研究에 어떻게 作用하였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便宜上 이 두가지 思想을 分離하여 생각해 보겠다. 마르크스·레닌주의의 唯物史觀이 如前히 中共의 歷史學의 根本的 支柱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一例로 中共 史學者의 元老의 한사람인 白壽彝가 1986年에 出版한 「中國史學史」 第1冊<sup>76)</sup>의 경우를 보면, 이 책 叙篇의 第1章은 「史學史研究的任務和範圍」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 그는 「共產黨宣言」에 言及하고 마르크스의 「經濟學批判」, 엥겔스 「自然辯證法」 등에서 長文을 引用하고, 그밖에 隨時로 마르크스·엥겔스·레닌·스탈린과 毛澤東을 引用 또는 言及하고 있다. 中國史學史에 대한 空前의 企圖라고 할 수 있는 本書의 基盤은 明白히 唯物史觀에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른 傾向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黨의 마르크스·레닌주의(馬列主義)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것이다. 吉林省 中共黨史學會가

76) 그의 「題記」에 보면 이 책은 1983년 7월부터 84년 12월까지 執筆한 것이며, 이 第1冊의 內容이 先秦時代로 끝나고, 總7冊을 豫定하고 있어서 史學史에 대한 企圖로서 새로운 것이라고 하겠다.

近 30 名을 動員하여 組織 編寫한 「新中國紀事 1949~1984」<sup>77)</sup>를 보면 毛澤東의 生時는 물론하고 그의 死後에도 1978 年까지는 中共의 首腦들과 機關誌는 機會가 있을 때마다 마르크스·레닌主義와 毛澤東思想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79 年에서 1984 年에 이르는 滿 6 年間에는 이에 대한 言及은 겨우 5, 6 次 밖에 보이지 않는다. 둘째는 中共 歷史學과 마르크스주의의 관계에 대한 問題로서 歷史學의 代表誌라고 하는 「歷史研究」에서 그 傾向을 살펴보겠다. 종래로 마르크스주의 특히 唯物史觀의 紹介, 이에 대한 理論, 國際共產主義運動史, 그리고 社會主義國家에 대한 歷史와 中共黨史에 관한 論文 記事가 本誌의 큰 比重을 차지하여 왔고 이것은 1978 年까지 마찬가지였으나, 그 이후로는 이들 論文과 記事는 極少數 밖에 보이지 않는다. (中共黨史의 연구는 이 時期에 더욱 強化되는데, 따로 研究機關과 專門誌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歷史研究所에서 1979 年부터 季刊으로 發行하여 「歷史研究」와 雙璧을 이루게 된 「中國史研究」(前述)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나 다른 機關 특히 地方에서 發刊되는 論文들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아직 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毛澤東思想에 관한 問題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경우보다도 그 強調가 더욱 시들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로 政治的인 面에서 볼 때에 上記한 「新中國紀事」에 보면 毛의 死後에도 中共의 首腦 즉 華國鋒은 물론하고, 鄧小平·葉劍英 등과 機關誌는 말하자면 言必稱 毛思想을 擧論하였는데, 1979 年 이후에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言及과 마찬가지로 겨우 數次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注目할 것은 現在 中共의 實權者인 鄧小平의 毛에 대한 태도다. 鄧은 毛에 대한 一般的인 言及에서는 그를 찬양하고 있다(新中國紀事, 1977. 8. 18, 78. 6. 2, 9. 16, 11. 27 등). 그러나 華國鋒의 「兩個凡是」<sup>78)</sup>를 자주 비판(1977. 2. 7, 3. 10~22, 4. 10, 5.

77) 더욱 基本的인 資料를 利用할 수 없는 것이 遺憾이지만 本書의 史料로서의 價値는 充分히 認定된다. 이 책은 4編으로 나누어 月目別로 叙述하고 있다. 註 (7) 참조.

78) 「凡是毛主席作出的決策, 都必須維護, 凡是損害毛主席形象的言行, 都必須制止」

24, 7. 16~21)하는 과정에서 毛 自身이 「自己도 錯誤를 犯한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며(1977. 5. 24), 毛의 思想은 全體의 體系로 理解하여야 하는 것이며, 「個別의 語句」로 理解하는 것은 不可(1977. 7. 16~21)하다고 하였다. 특히 鄧은 1980年 8月에 「毛主席은 1962年에 自我批判을 하였고... (文革中의) 그의 政治錯誤는 過少評價할 수가 없다」(8. 21~23)고 말하였다. 胡耀邦과 人民日報의 記事도 鄧의 華에 대한 批判에 同調하고 있다. 그밖에 1979年에서 1984年에 이르는 사이의 毛에 對한 紀事는 各 毛의 90週 生日에 관한 것과 (83. 12. 23 및 26) 毛의 文集出版에 관한 것이 (82. 12. 25) 있는데, 前者는 馮玉祥의 100週 生日의 記事 보다 簡略하며 (82. 9. 15), 文集에 관하여는 周恩來·劉少奇·鄧小平 등의 選集出版에 관한 紀事도 있는 까닭으로 特記할 것이 못된다. 毛思想에 대한 이와 같은 格下는 史學界에도 反映되어, 「歷史研究」를 보아도 앞에서 본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것과 같이 1979年 이후에는 극히 드물게 보일 따름이다.

다음에 中共 歷史學 草創期の 五朵紅花와 그밖의 이 時期의 主要한 論議의 對象이 되었던 문제에 대하여 극히 簡略하게 言及하겠다. 「歷史研究」編輯部는 1983年에 「建國以來史學理論問題討論舉要」를 出版하였는데, 다음의 문제에 대하여 各 問題의 爭點과 그 史的 推移를 分擔 執筆한 것이다.

- (1) 아시아的 生産樣式
- (2) 奴隸社會와 封建社會의 分期
- (3) 封建社會 內部的 分期
- (4) 封建土地所有制形式
- (5) 資本主義萌芽
- (6) 封建社會長期延續문제
- (7) 農民戰爭

(新中國紀事, 1977. 3. 10~22. 또 同年 2·7 紀事참조)라고 華가 [강조한 것을 말함.

- (8) 民族形成문제
- (9) 中國古代民族關係
- (10) 愛國主義와 民族英雄
- (11) 歷史人物評價
- (12) 歷史發展動力문제

앞의 12의 문제 중에서 (1)에서 (8)까지는 이른바 五朵紅花의 문제며, (10)과 (11)도 이미提起되었던 문제다. (9)의 문제도 전혀論議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少數民族 또는 周邊民族의 문제가 重視되게 된 結果이나, 아직 다른 문제들 보다는 比重이 약하다. (12)의 문제는 종래 歷史發展의 動力은 階級鬭爭이라고 보고 異見이 있을 수 없다고 하던 立場에서 文革期에 儒法鬭爭이라는 似而非 理論의 風波를 겪은 후에 「生産力」 또는 「生産鬭爭」이라는 문제를 動因으로提起한데서 浮刻된 문제다. 本書에서 다른 문제들은 再建期の 理論問題로서 重要的 것임은 물론이나 本稿에서 이들에 대하여 詳論할 수는 없고 問題點을 提示하는데 그치려고 한다. 한가지 附言할 것은 草創期에 있어서 五朵紅花가 歷史學 전반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거의 絶對的이었으나, 再建期에 있어서의 그 比重은 減少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唯物史觀에 立脚한 中國社會의 性格規定 보다 中國史 自體에 대한 研究의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唯物史觀의 立場에서 敵對視되었던 歷史主義가 中共의 歷史學研究에 導入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문제다.

또 한편으로는 歐美에 있어서의 歷史研究의 傾向에 關心이 점차로 나타나 「歷史研究」(年 6期)나 最近에 새로 刊行되기 시작한 「史學史研究」(北京師範大學 史學研究所編, 季刊)에는 歐美史學界의 現況에 대한 紹介가 一年에 한두번 정도 極히 簡略하나마 掲載되고 있다.<sup>79)</sup> 또 1986年에 이

79) 前에도 西洋史에 관한 論文이 있었으나, 그것은 주로 社會經濟史 또는 改革이나 革命運動에 관한 것이고, 특히 社會主義國家와 最近世史에 있어서의 帝國主義進出에 관한 것이 大部分이었다.

르러 랑케의 客觀主義史學에 관한 紹介가 보이고(史學史研究 86.3期), 다음 해에는 美國의 「現代資產階級史學의 代表人物의 한사람」인 J. Robinson (1863~1936)의 史學을 5·4 運動 후에 何炳松(1890~1946)이 中國에 紹介한데 대하여 論하고 있다(같은 책, 87.3). 또 史學研究의 方法에 대하여 計量史學, 比較研究의 문제도 提起되고 있다. 前者의 경우로서 「歷史研究中的數學方法——數量史學評介」(같은 책 85.4)는 4페이지 정도의 短文인데, 소련 史學界의 이 문제에 대한 研究에 言及하고, 마르크스·엥겔스·스타린의 古典에 근거하여 이를 說明하고 있으며, 後者의 例로서 「關於史學比較研究的思考」(같은 책 87.3)에서는 司馬遷과 班固의 史學 比較研究, 「海國圖志」(魏源)와 「日國圖志」(黃遵憲)의 比較研究를 다룬 것으로서, 이들 敘述은 한편 唯物史觀基調의 전체적 환경 속에 薄氷을 밟는 듯한 조심성을 보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理論의 水準이 매우 初步的이라고 評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그리하여 「史學史研究」의 근본 立場이 「唯物主義歷史觀是唯一科學的歷史」(같은 책 87.2 所收의 論文)라고 하는데 있다는 사실을 無視할 수 없으며, 이것은 또한 이 책에는 거의 各號의 앞에서 말한 「中國史學(第1冊)」의 著者 白壽彝를 비롯하여 그 밖의 中共史學의 巨物 元老들의 論文이 如前히 掲載되고 있다는 點에서도 分明히 알 수 있다.

## V. 結 論

緒論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中共의 歷史學의 潮流를 4期 즉 草創期·變革期·受難期와 再建期로 나누어 그 大勢를 살펴 보았다. 다만 受難期の 歷史學은 이른바 影射史學으로, 虛構 또는 似而非 史學이었기 때문에 敘述의 便宜上 變革期와 合하여 한 章으로 묶었다. 그 潮流를 넷으로 나누었으나 中共의 歷史學의 主潮는 唯物史觀에 있다. 그리하여 마르크스주의를 基盤으로 毛澤東思想을 援用하여 中國史를 理解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五朵紅花가 研究의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며 反右派鬪爭으로 많은 史

學자가 批判과 肅清을 당하게 된 것이다.

第2期の 史學革命的 變革은 第1期和 繼絶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第1期の 延長이며, 革命期的 諸般 樣相의 始初는 前期에 있었으며, 唯物史觀에 있어서 歷史學 研究는 政治에 從屬되는 것인 까닭으로 이 時期의 古爲今用의 口號가 強調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하여 古爲今用을 延長하면 歷史의 改造와 捏造가 可能하여진다. 따라서 儒法鬭爭의 歷史體系가 나타나는 것도 理解할 수 있는 일이다. 독일의 B. Eberstein 교수는 儒法鬭爭을 論하여<sup>80)</sup> 思想的 政治的 矛盾 즉 物質主義와 理想主義의 對立이라는 문제와 支配階級 內의 矛盾에서 나타나는 階級鬭爭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기초 理論을 발전시킨 것이기는 하나, 한편 中國 特有的 것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보면 中國의 史學者들이 (儒法鬭爭이라는 문제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中國의 過去의 歷史 속에서 唯物主義의 證據를 발굴하여 그것을 강조한다고 하여도 그것이 마르크스주의의 理論에 符合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다.

唯物史觀에 기초를 둔 歷史解釋의 하나의 結果가 儒法鬭爭의 解釋體系였다면, 이 解釋體系가 一朝에 風散되었을 때에 中國 歷史學의 基礎인 唯物史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可能性은 없는가 하는 문제가 發生한다. 적어도 中共의 史學者들의 一部는 그것을 느꼈을 可能性은 있어도 아직도 表面化시킬 處地에 있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것은 물론이다. 앞에서 말한 中共의 歷史學에 있어서 唯物史觀과 관련된 理論이나, 紹介가 減少되고 五朵紅花를 비롯한 理論의 比重이 덜 하여지는 것도 今後의 커다란 변화의 序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五朵紅花 등의 문제는 解決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 아시아的 生産模式的 問題가 그렇고, 資本主義萌芽 問題가 그렇다. 萌芽 問題는 40年間

80) China's History in Chinese Dress, *Oriens Extremus*, 24(1977) pp.145~

166. 특히 그 結論 부분 참조. 이 論題는 註2에 든 Feuerwerker의 論題 중의 "Marxian"을 "Chinese"로 바꾼 것인데, 示唆하는 점이 많다.

의 論議가 점점 擴大될 뿐이다. 萬一 萌芽問題가 어떤 結末을 얻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萌芽」에 그치고 더욱 重要한 「資本主義段階」의 문제가 있다. 「萌芽」에 그치는 문제이기 때문에 「近代史」의 문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것도 이 문제의 解決이 遼遠하다는 것을 뜻한다. 또 時代區分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時代의 特徵을 理解하기 위한 하나의 方法(方便)인데, 中國史의 發展過程을 이른바 世界史의 그것에 合致시키려고 하여 歷史研究의 目的으로 轉換되었는데, 이 문제는 解決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떤 解決을 본다고 하여도 歷史研究에 있어서 어떤 意義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렇게 보면 五朵紅花와 그밖에 論爭點으로 浮刻된 문제들 중의 많은 問題는 (그 問題들의 基礎가 되는 唯物史觀의 경우에서 그리하듯이) 史學者들의 關心과 努力을 여기에 緊迫하여 두어서, 歷史研究에 있어서 다른 觀點이나 方法에 대하여 關心을 喚起시키고 研究에 集中할 수 있는 餘裕를 주지 못하는 結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本稿는 不充分한 資料에 의한 것인 까닭으로 後日의 補正을 期할 것을 附記하여 둔다.